

인터뷰로 만난
학교밖청소년 8인의
진짜 이야기

개꿀 인생



***일러두기**

1. 인터뷰에 응한 청소년 중 조정한, 노태서를 제외하고 모두 가명을 사용하였다.
2. 인터뷰한 청소년들 중 일부는 도시형 대안학교에 다니는 청소년이고, 일부는 위탁형 대안학교에 다니는 청소년이다. 행정적으로 따지면 위탁형 대안학교 학생들은 '학교밖청소년'이라고 말하기 어려울지 모르나, 삶의 조건이나 심정적 상태, 학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책에서는 '학교밖청소년'이라고 명명하였다.

인터뷰로 만난
학교밖청소년 8인의
진짜 이야기

개꿀 인생

글쓴이 이은진
디자인 사이스튜디오
발행일 2015년 12월 31일
발행인 이창범
발행처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 교육훈련팀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114길 43
전 화 02-2051-8600
홈페이지 www.dreamcenter.or.kr

ISBN 979-11-957138-1-3

*이 책의 독창적인 내용에 대한 무단인용, 전재, 복제를 금합니다.

인터뷰로 만난
학교밖청소년 8인의
진짜 이야기

개꿀 인생

여는 글



삶의 경험

우리는 모두 각자 삶의 경험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부모님과 함께 했던 경험,
동네 친구들이나 사회 속 만남에서의 경험...
많은 경험이 쌓이고 쌓여 지금의 우리가 되었고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존재가 되기도
누군가에 의해 변화한 존재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험이 삶을 변화시키는지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아이들의 경험이 있습니다.
때론 이해하기 힘들고 마음이 아프기도 하지만

천천히, 누구보다 느리게 변화하며
‘이 순간’을 살아가는 아이들입니다.
우리가 변화해온 것처럼 이 아이들도 언젠가 변화했지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쁜 추억은 있어도 나쁜 경험은 없다.
닫고 일어서는 사람에게는 모두가 다 좋은 경험이다.’

부디 이 경험이 아이들이 살아가는 데에
소중한 밑바탕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 센터장

이창배

책을 펴내며



조르바,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그리스인 조르바』는 10대를 온몸으로 사는 우리 아이들과 닮았다. 조르바는 춤추고 노래한다. 조르바는 물레를 돌리는 데 거추장스럽다고 손가락을 잘라버린다. 조르바는 수도승을 꼬여 타락한 수도원에 불을 지르는 등 기행을 일삼았던 실존 인물이다. 그의 삶의 이야기나 사고방식에는 문제가 많아서 단편적으로 이해하면 그는 ‘쓰레기’이다. 그러나 작가는 그의 이야기를 따라가며 ‘절대 자유’를 발견한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육체와 영혼, 물질과 정신의 임계 상태 저 너머에서 일어나는 메타이소노(거룩하게 되기)가 있기 때문이다. ‘포도가 포도즙이 되는 물리적인 변화’를 넘고, ‘포도즙이 마침내 포도주가 되는 화학적인 변화’도 넘어, 포도주가 사랑이 되고 성체가 되는 거룩한 ‘경험’으로 조르바의 삶이 구성되어간다.

우리 아이들은 10대에 공교육 학교를 다니지 않거나 학교를 다니면서도 학교를 죽기보다 싫어하는 경우가 많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배우는 것과 다른 배움을 원할 때도 있고, 가정

에서 심각한 일을 겪기도 한다. 학교에서 어떤 일을 맞닥뜨리기도 하고, 거리에서 친구들과 놀다가 이런 저런 상황을 만나기도 한다. 이런 상태를 ‘위기’라고 하지만 나는 이를 ‘조르바의 경험’이라고 부르고 싶다. 아이들은 15년 전후 삶을 살면서 이제 겨우 ‘포도주가 물리적 변화’를 일으키는 시기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어린 조르바들은 만만하지 않다.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에 비추어 교사를 판단한다. 그래서 ‘얘기해 볼만한 사람’이거나 ‘투명 인간’으로 만들어버린다. 어른들이 그들에게 말 좀 붙이려면 먼저 물어보거나 들어봐야 한다. 한참 ‘간’을 보다가 서로의 경험이 나뉘질 때, 생각이 통할 때 ‘만남’이 시작된다. ‘만남’은 인생을 글로 배운 선생이 어린 조르바의 경험 속에서 인간과 세계를 통찰하는 ‘자유’를 얻고, 어린 조르바에게 경험을 ‘해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서로 ‘해석의 지평을 넓혀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이것이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아이들은 어떤 표준이나 무엇이 옳고 그른지 배우는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철나적인 화학 변화’를 통해 성숙된다.

교사는 이 '찰나'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아이들이 어떤 경험, 누구와의 만남을 통해 '변화'를 겪을 것인지를 계획하지만, 교육 목표와 내용은 아이들과의 '대화'를 통해 만들어간다. 모든 과정이 아이들에게 유익할 것이며 아이들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망상은 갖지 않는다. 무수한 만남, 경험, 사건들을 통해 아이들에게 자신만의 '찰나적 한 순간'이 있기를 바랄 뿐이다. 조금 거창하게 이야기했지만, 이를 위해 10대 인터뷰집을 기획하기에 이르렀다. 교사들이 먼저 조르바를 통해 '볼 것'이 있다고 생각해서이다.

이 인터뷰집은 어린 조르바들인 청소년들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들으면서 통찰의 자유를 얻고자 했다. 아이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으면서 속에 있는 것을 뱉어내는 기회로 삼고자 했다.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내 운영되고 있는 도시형 대안학교와 위탁형 대안학교 출신 청소년 중 공교육 경험이 전혀 없는 아이, 홈스쿨러였던 아이, 외국 학교 경험이 있는 아이, 공교육 학교를 지속하다 어려움에 부딪친 아이, 여전히 학교가 싫은 아이, 학교에 대해 다른 생각이 있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어떤 이야기는 개인적인 삶이 너무 드러나 보호가 필요했고, 어떤 이야기는 조금은 허황되거나 곁돌기도 했다. 우리는 보호가 필요한 글을 지면에 실지 않았으며, 나머지 글들은 독자들의 해안에 해석을 맡기며 가감 없이 글을 실기로 했다. 현재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은 '완성된 상태'이거나 '좋은 사례'를 나누는 데 목적이 있지 않고, 10대의 경험이나 생각을 진득이 앉아 '경청'하는데 있기 때문이다.

인터뷰에서 만난 어린 조르바들은 데미안이 되기를 기다리는 싱클레어이기도 하고, 학교 안에서 온갖 기행을 일삼는 존재이기도 하다. 자기 성장을 위해 많은 시간을 혼자 보내고 싶기도 하고, 때로는 혼자일까봐 무척 불안한 존재이기도 하다. 너무나도 현실적인 꿈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허황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기도 하는 존재들이기도 하다.

어찌되었건 아이들은 이러한 경험을 가지고 한 시민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경험은 바람직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 더 많다. 그들의 각기 다른 경험 속에서 우리는 "자기 속도로 얻어진 삶"을 들을 수 있었다. 그 이야기는 헛바퀴 돌지 않고 알맹이가 있었는데 그건 아무래도 누구에게 들은 말이 아니라 '겪고 생각한 이야기'여서인 것 같다. 중요한 것은 '현재 각자의 경험'을 '나' 중심에서 벗어나 한 시민으로, 한 인류 안에서 성찰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우리는 이들의 경험을 진단하고 문제로 삼기보다 경험을 '경험'이게 하고, 다른 해석의 틀을 가져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길 바란다. 아무쪼록 이 책을 통해 10대와 만나는 어른들에게 '찰나적인 만남'이 있길 바라며, 청소년에게 관계 속에서 자신의 경험을 비틀어 생각해볼 수 있는 전환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 교육훈련팀장 **우소연**



004 여는 글 삶의 경험 / 이창범

006 책을 펴내며 조르바,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 우소연

016 공간에서 뿔어 나가는 배움의 길 / 조정환

028 ★ 정환의 청소년드림센터 프로그램 사용법

032 지금 합합 무시하시는 거예요? / 산성준

046 ★ 청소년 가출에 관하여

050 전 '일잔'의 평범한 생활 / 도성민

별일 없이 산다

1장

정글에서 살아 남기

2장

062 '대치동 키드' 연대기 / 이찬승

076 ★ 보호관찰에 대하여

080 반도의 혼한 / 김영재

094 아무도 모른다 / 박수호

흔들리며 피어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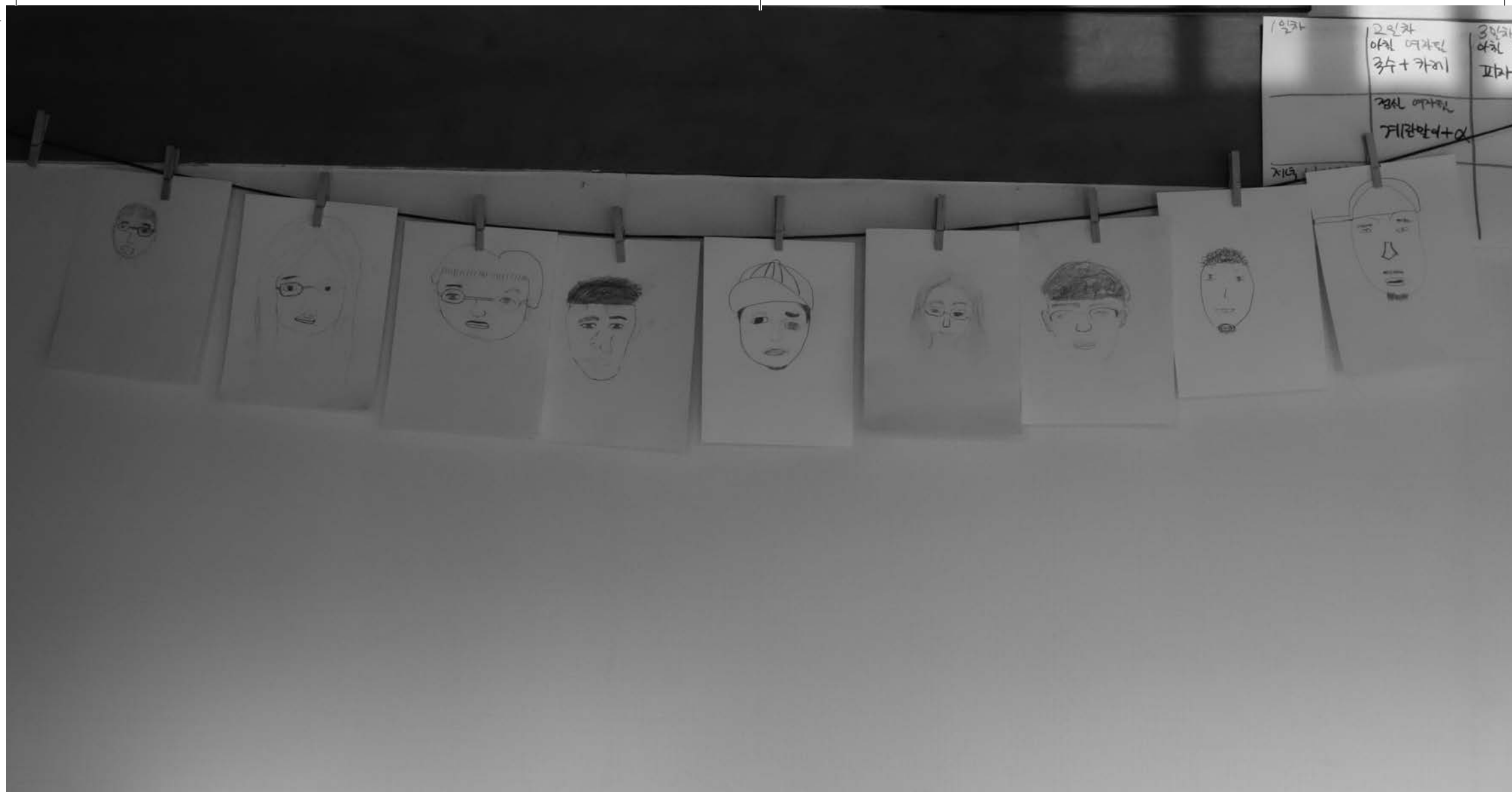
3장

108 싱글레어에서 데미안으로 가는 길 / 김은영

119 ★ 은영의 외부활동

122 혼자 있는 시간의 힘 / 노태서

133 부록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 소개



개
꿀
인
생

별일 없어 산다

1장

공간에서 뺄어 나가는
배움의 길 조정환

지금 힙합
무시하시는 거예요? 정진필

전 '일진'이
평범한 생활 도성민



공간에서 뻗어 나가는 배움의 길

조정환 (19세, 이룸학교 재학생)



“지난 18년 간은 별난 짓 하면서 지냈지만 앞으로는 그동안 못했던 것들을 도전하면서 살아볼까 합니다...”
- 2015년 12월 11일 정환이 졸업식에서 직접 쓴 글을 읽는 모습.

정환은 졸업을 앞두고 있는 <이룸학교> 학생이다. 초등학교 때부터 운동(태권도)을 해왔던 정환은 운동을 그만두게 되면서 자퇴를 하고 ‘육지’(정환의 집은 섬이다.)로 왔다. 학교를 그만두고 홀로 서울생활을 한 지는 벌써 3년이다. 처음엔 부모님께서 소개해주신 비인가 도시형 대안학교에 다녔지만, 조금 학교생활이 괜찮아진다면 싶으면 일이 터졌고, 학교의 ‘관리’와 ‘통제’가 더 강해질수록 다시 학교에 다니기 싫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결국 1년 반 만에 대안학교를 그만두고 ‘혼자 힘으로 살 수 있다’는 말에 책임을 지기 위해 ‘알바생활’을 시작했다. 몇 달 힘들게 아르바이트를 하던 와중에 아는 형이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를 소개해주었다. 센터에 괜찮은 아르바이트 자리가 있다는 이유였다. 소위 ‘꿀알바’ 말이다.

바리스타 일도 배우면서 일도 그리 힘들지 않게 할 수 있는 이 ‘알바’는 정말 ‘개꿀’이었다. 정환은 센터 안에 있는 드림카페에서 ‘선임’까지 했으며 자랑스러워 했다. 그리고 정환은 이 센터 안에서 아르바이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에 참여하게 되면서 마음을 붙이기 시작하게 되었다.

보통 비인가 도시형대안학교를 입학하는 청소년들은 대부분 보호자와의 상담을 통해 입학하게 된다. 현대 정환은 앞서 말한대로 이 센터의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인 ‘드림인턴십’(바리스타 교육과정을 거치는 유급 인턴십)으로 시작하여 단기학교 ‘점프-업 코스’(검정고시

대비 단기학습과정)를 거쳐 학교밖청소년 도시형대안학교인 <이룸학교>에 입학하게 된 케이스이다. 부모님의 권유나 도움 없이 그냥 ‘꿀알바’를 찾아 왔다가 공간 안에 펼쳐진 프로그램과 관계들을 통해 배움의 기회들을 넓혀가면서 자연스럽게 학습 경로를 밟아 왔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두 달 동안 검정고시를 준비하면서 정환은 생애 처음으로 ‘배움의 즐거움’을 깨달았다고 했다. 자신감이라는 것이 생긴 김에 대학도 준비하고 있고, 포기하고 있었던 ‘교사’라는 꿈도 다시 꺼내어 재어보는 중이다. 사회복지학과에 진학한 뒤의 다양한 계획들도 이미 어느 정도 세워 두었다. 불과 1~2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정환 인생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정환의 이야기를 들으며 ‘공간’이 가지는 힘을 생각해본다. 다양한 층위의 기회를 주는 복합공간이 한 아이를 얼마나 변화시킬 수 있는지 말이다. 특히 정상적으로 학교에 다닐 수 있는 몸이 되지 않은 아이들에게는 이곳이 어찌하면 그냥 하룻밤 공짜로 잘 수 있는 곳, 놀 수 있는 곳, 용돈을 벌 수 있는 곳 이상이 될 수 있을 것이므로... 다양한 프로그램과 관계들을 통해 하고 싶은 일들이 생겨나는 것, 그것을 위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것이야말로 청소년 공간이라는 ‘마을’이 가질 수 있는 힘이 아닐까.

정환은 그 힘의 산 증인이다.





섬에서 육지로 온 이유

은진 서울 온 지 얼마나 됐어요?

정환 서울 와서 혼자 산 지 3년쯤 됐어요. 제주도에서 죽 일반학교 다니다 고등학교 초반에 자퇴 '때리고' 올라온 거거든요.

은진 어떻게 자퇴를 결심하게 됐어요?

정환 원래 중학교 때 운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인문계고등학교로 진학을 했는데 3개월쯤 다니다가 운동을 그만두게 되면서 실업계고등학교로 가게 됐어요. 운동을 안 할 거면 그 학교에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학교를 옮기니까 친구가 없잖아요. 친구라고 해봤자 중학교 때 친구들? 그래서 전학 간 학교를 한 이틀도 안 다니고 그만뒀어요. 학교 다니기 싫어서요.

은진 운동을 하다가 그만두게 되면 정말 막막할 것 같은데...

정환 그렇죠. 게다가 제가 전학간 곳이 '짱'들이 많이 모여 있는 학교였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운동부에 있기 때문에 어차피 다 연결이 되거든요. 걔네들이랑 놀다 보면 제가 할 것들을 못하게 될 것 같

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아예 자퇴를 한 거죠.

은진 당시의 생활이나 주변 사람들과 단절을 하고 싶었던 건가봐요?

정환 네. 지금도 그런 생각엔 변함이 없어요. 제주도에서는 거기서 나름 할 수 있는 게 있지만, 여기 (서울) 오면 할 수 있는 게 더 넓어지기도 하니까요. 지금도 제주 가면 친구들 만나는데 여기 와서 더 좋다고 말하곤 해요.

은진 그렇게 바로 행동으로 옮기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정환 부모님께서 일단 저를 많이 믿어주셨어요. 저 같으면 그냥 계속 버티라고 했을 텐데... 처음에 혼자 왔을 때 걱정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세월 지나고 나니까 잘 올라왔다는 얘기도 해주세요.

은진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마음을 먹는 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난 것 같아요?

정환 모르겠어요. 그냥 다니기 싫은 마음이 너무 커서 그랬던 것 같아요. 일단은 친구들이랑 떨어지게 되었다는 게 컸던 것 같아요. 운동하면서 원래 늘 함께 생활해왔기 때문에... 학교 같이 다니고, 같이 운동하고, 밥도 같이 먹고, 새벽 운동도 같이 하고, 저녁에도 같이 있고 그랬거든요...

은진 그런데 어떻게 보면 서울로 오면서 친구들과 더 멀리 떨어진 거잖아.

정환 그런데 그게 다행인 게 제주도에 있었으면 아직도 꿈도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여기 와서 많은 것들을 보고 느끼고 하니까...

은진 그만두자마자 대안학교를 다니기로 한 건가요?

정환 부모님께서 관련된 학교를 알아봐 주셨어요. 오래 전부터 해외봉사 같은 것 가보고 싶다고 생각했었는데, 그 학교에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어요. 필리핀에 자원봉사활동을 가는... 저도 좋아서 바로 올라왔죠. 1년 반 정도 다니다가 <이룸학교>로 온 거예요.

은진 필리핀에서는 어떤 경험을 했어요?

정환 생필품 전달하고, 의사선생님들 진료하실 때 옆에서 몸무게나 열 같은 걸 재주는 것들을 했어요. 청소도 하고요, 한 어머니가 열사병 같은 게 걸려서 엄청 아프신데 그 집에 아이가 셋이나 있는 거예요. 그 방 안에 개미 같은 것들이 엄청 많았는데 거기 다 청소해주고 설거지하고... 그때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제가 방을 막 닦고 있는 거예요. 애들은 가만히 있는데 저도 모르게 몸이 튀어나가더라고요. 청소 다 하고 벌레 있는 데도 한번 다 닦고... 밖에 나가서 설거지도 하고, 옆에 있는 모르는 꼬맹이들이 물을 떠오고... 다 같이 동참하게 되더라고요. 거기서 엄청 자부심 같은 걸 느끼게 됐어요.

은진 힘들지는 않았고요?

정환 힘들더라도 저녁 되면 웃으면서 얘기하고 그랬어요. 언어가 안 통해서 답답했어요. 사실 마지막에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인사를 제대로 못 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저에게 주라고 목걸이를 줬대요. 근데 그 정도면 한 끼 충분히 먹는 거거든요. 못 먹는 애들이라는 걸 아니까... 그래서 그것 받고 하루 종일 울었어요. 솔직히 누가 줬는지도 모르고... 선물은 생각도 못했거든요...

‘개꿀’ 알바

은진 대안학교를 옮기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가요?

정환 처음에도 학교가 별로 좋지는 않았는데 갈수록 점점 더 싫어지더라고요. 필리핀으로 봉사활동을 다녀와서 좀 잘 다니다가 또 싫어지니까 안 나가고, 사고 치고... 사고를 많이 치니까 제제도 많이 당하고, 그러다보니까 저도 못 버티겠고...

은진 왜 자꾸 싫어졌을까. 뭔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나보죠?

정환 제가 막 늦게까지 놀고 학교도 좀 늦게 가고, 학교에서 사고 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 가출한 친구를 제가 사는 원룸에서 몇 번 재우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스포츠도박도 했었거든요... 그걸 제가 한 친구한테 소개해준 적이 있는데, 그 친구가 자기 통장으로 입금을 하다가 엄마한테 들려서 발각 뒤집힌 적도 있었어요. 원래 수업이 4시쯤 끝나는데 저는 특별히 8시까지 야자를 해야만 했어요. 아침에 못 일어나면 선생님이 제 자취방 열쇠를 가지고 계시다가 문 열고 그냥 들어오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제가 또 집 안에서도 담배를 피우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또 혼나고... 한계가 오더라고요. 저도 아빠를 호출했죠. 올라와달라고... 학교 다니기 싫다고...

은진 그래서 그만 다니기로 한 거예요?

정환 네. 아버지가 ‘학교 안 다니고 뭐 할 건데?’ 하셔서 제가 직접 돈 벌어서 살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빤 일 때문에 먼저 내려가시고요. PC방 알바도 해보고 전단지 알바도 해보고, 편의점도 해보고... 술집 빼고는 웬만한 알바 다 해본 것 같아요.

은진 얼마나 그렇게 지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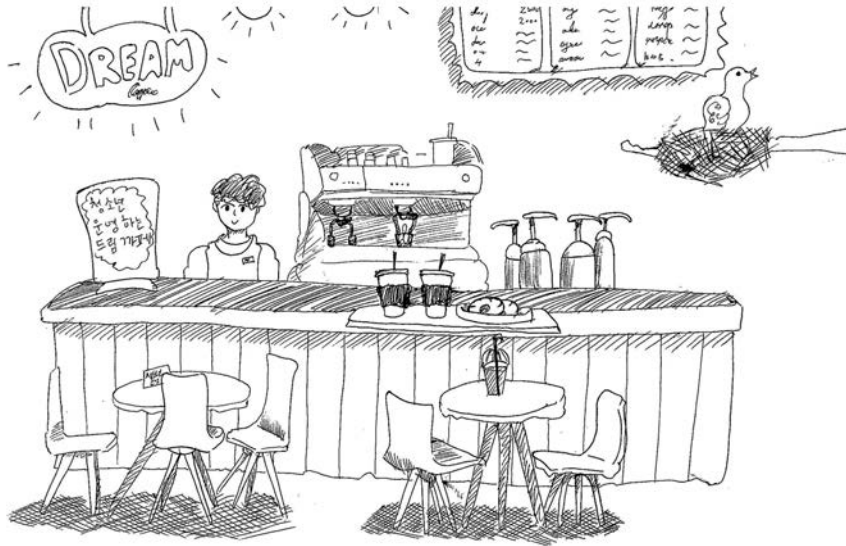
정환 한 4개월. 한꺼번에 두 개씩 알바 뛰고 그랬죠.

은진 어땠어?

정환 어휴... 말도 안 돼요... 두 번 다시는...

은진 어떤 일이 제일 힘들었어요?

정환 주방에서 일했을 때요. 그때 어휴, 베트남 쌀국수집에서 일했는데 너무 뜨거우니까... 옆에서 국수 같은 것 올려주는 일 했었는데, 손님들이 먹을 만큼만 올려야 하는데 양 조절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처음에 사장님한테 엄청 욕 들으면서 배웠어요. 할 게 안 돼요. 하루에 12시간씩 해야 되거든요? 일주일 에 한 번 쉴 수 있고 주 6일 12시간씩 일해서 150만 원. 뽀은 말이 있으니까 ‘헬프 처’달라고 할 수도 없고... 4개월 정도 그러고 있는데 필리핀 자원봉사 같이 갔던 형이 여기 <청소년드림센터>를 소개해줬어



정환은 청소년드림센터의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인 '드림인턴십'에서 바리스타 과정을 배운 뒤 '드림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하면서 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 사람들과 관계를 맺게 되었다. 이 그림은 '드림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한 청소년이 카페를 그린 그림이다.(©절버트)

요. 인턴십해서 바리스타를 하라고... 근데 괜찮은 거예요. 커피 하다가 여기 카페에서 알바하고 선임까지 했거든요. 그렇게 일하다가 검정고시 반인 '점프-업 코스' 반이 있었는데 거기 선생님께서 권유해주셔서 다니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이룸학교> 아이들을 알게 된 거죠. 저도 다니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다니게 됐는데 학교 다니는 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들어온 지 한 6개월쯤 된 것 같아요.

은진 카페 일 배운다고 센터에 처음 드나들기 시작하는지 얼마나 된 거죠?

정환 1년 2개월이요.

은진 그러면 받은 카페 일이라 검정고시 준비하고, 받은 <이룸학교>를 다닌 거네요?

정환 네. 생각보다 오래 됐네요.

은진 밖에서 하던 아르바이트랑 <청소년드림센터>에서 하던 아르바이트랑 달랐어요?

정환 '페이'는 솔직히 밖이 더 많이 받죠. 전단지 같은 건 시간당 7천 원씩 받거든요. 여기(<청소년드림센터>)는 일단 애들이 많고 최대한 알바 기회를 주려다보니 최저임금으로 시작하거든요? 하지만 여기 카페는 '개꿀'이에요. 진짜, 진~짜. 다른 데서는 이만한 알바를 못 찾죠. 손님도 딱 적당하고.

은진 검정고시는 어땠어요?

정환 저는 이게 인생에서 처음 공부한 거거든요? 배움의 즐거움을 이번에 처음 깨달은 거예요. 단 한 순간도 이렇게 공부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두 달 공부했는데, 정말 지식이 없었는데, 합격을 하긴 했는데...

은진 뿌듯했겠어요.

정환 네. 자신감도 생기고... 한 발 더 다가간 느낌일까요?

새로운 길

은진 알바를 하러 왔다가 검정고시반에 들어가게 됐고, 그러다가 대안학교를 입학하게 된 건데,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입학이 굉장히 자연스러웠네요.

정환 맞아요. 부모님이 따로 올라오셔서 상담을 받은 것도 아니고, 선생님들하고 몇 번 상담하고, 다니고 싶으면 다니라고 하시니까... 이미 알던 애들도 몇 명 있었구요. 처음 본 아이들이 있긴 했지만 어차피 여기는 선후배 이런 게 딱히 없어요. 옛날에 운동했을 때는 선후배가 딱 잡혀 있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서로 편하게 지내요. 저한테는 거의 다 후배인데 웬만하면 말 놓으라고 하고... 이게 딱 좋은 것 같아요.



〈이룸학교〉의 모든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체 활동' 중 '공동 밥상' 시간에
교사와 함께 피자를 만들고 있는 정환.

은진 이 학교가 맞는 이유가 뭘까? 어떤 점들이 다른 걸까.

정환 일반 학교처럼 국, 수, 사, 과, 영 이런 게 없는 게 좋고요, 일단. 그리고 개인들이 할 수 있는 것, 관심 있는 것으로 연결해 주시니까. 진학을 원하는 아이들, 미래를 결정할 아이들, 경험과 체험이 필요한 아이들... 이렇게 세 분야로 아이들을 나눠서 관리해주시는 게 좋아요.

은진 일종의 맞춤형 학습이 이루어진다는 건가?

정환 네, 저는 '진출진학반'인데 지금 대학을 알아보고 있죠.

은진 대학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예전부터 했어요?

정환 아뇨, 원래는 안 했어요. 그런데 검정고시를 치고 나니까 바로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학이 중요하다는 생각은 안 하는데 일단 사회복지학 쪽을 공부해서 나중에 아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대안학교 교사 같은 거요.

은진 대안학교 교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은 언제부터 했어요?

정환 원래 초등학교 선생님 되고 싶다는 생각은 했었거든요. 그런데 공부를 열심히 한 것도 아니고 노력도 안 했기 때문에... 교대 들어가기는 어렵고... 그런데 대안학교 교사 같은 걸 해도 괜찮겠더라고요.

은진 다시 <이룸학교> 와서 교사 하면 되겠네.

정환 아, 그러면 완전 '아리가또'인데, 그것도 뭐 뽑아줘야 되는 거지... 안 뽑아주면 '짜이찌엔'인데요 뭐...

은진 (웃음) 대안학교 교사가 되기 위해서 사회복지학과에 가야겠다는 생각은 어떻게 한 거예요?

정환 제가 여기 선생님들한테 다 여쭙봤거든요. 근데 청소년학과랑 사회복지과가 있는데 사회복지쪽 전공하면 다른 분야로도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은진 대안학교 교사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여기 선생님들 영향인가봐요?

정환 음... 네, 여기 와서 느낀 것 같아요. 대안학교 교사도 할 수 있다는 건... 초등학교 교사가 일단은 안 되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은진 뭐가 제일 좋았어요, 이 학교 다니면서?

정환 부모님 믿음이 확실해졌어요. <이룸학교> 들어왔을 때부터. 이 학교는 부모님께서 알아보신 게 아니라 제가 직접 들어온 거잖아요. 그때부터 부모님이 확실히 저를 많이 인정하게 된 것 같아요. 이제 대학만 잘 가면 돼요. 대학 가서 열심히 살아야죠.

은진 잘 될 것 같아요?

정환 네, 성적 때문에 많이 불안했거든요? 그런데 1차에 합격된 걸 보면 자기소개서를 좋게 보신 것 같아요. 2차 면접이 남아 있어서 <이룸학교> 선생님들하고 계속 이야기 나누고 있어요.

은진 요즘에는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있어요?

정환 요즘 수시 원서 쓰러 제주도에서 친구들이 서울 많이 올라왔거든요. 오늘도 경기도에서 밤새고 아침에 바로 올라온 거예요.

은진 피곤하시겠어요.. (웃음) 그나저나 태권도를 잘하겠네, 지금도.

정환 에이... 다 죽었어요. 3년을 안 했는데... 지금 3단이긴 하거든요? 4단 따려면 딸 수 있는데, 쓸 데도 없고.

은진 필리핀 가서 태권도 선생님을 하게 될 줄 어떻게 알아요... 암튼 본인이 본인의 길을 잘 찾아서 가는 중인 것 같아서 보기가 좋네요. 제주도로 다시 돌아갈 생각은 없어요?

정환 아직은 모르겠어요. 나중 되면 길이 또 보이겠죠?



정환의

청소년드림센터

프로그램 사용법

서울시청소년드림센터는 청소년들에게 여러 가지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이다. 정환은 크게 다음과 같은 진로 및 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면서 배움의 경로를 밟아왔다.

이 외에도 센터 내에는 다양한 학교밖청소년을 위한 진로집중, 직업훈련, 자립지원, 상담치료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학교 안팎의 청소년들이 다양한 수준의 프로그램들을 이용할 수 있고, 연계해 나갈 수도 있다.



STEP 1. 직업역량강화프로그램 '드림인턴십'

바리스타 교육과정을 거쳐 실제 카페로 나가 사회생활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유급 인턴십 진행

- 대상 : 만 15세~24세 청소년
- 인원 : 15명
- 일시 : 상하반기 매주 화, 수, 목요일
- 장소 : 5층 바리스타실
- 신청 및 문의
이메일(dreamwanda@gmail.com) 및
전화(02-2051-9920)

STEP 2. 실질직업훈련프로그램 '꿈꾸는드림카페'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카페 운영 전반에 대한 직업 체험 활동 및 아르바이트

- 대상 : 만 15세~24세 청소년
- 인원 : 운영 청소년 8명 이내
- 일시 : 연중 상시
- 장소 : 4층 드림카페
- 신청 및 문의 : 02-2015-3751

STEP 3. 단기 학교 '점프-업 코스'

- 대상 :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청소년
- 인원 : 〇〇명
- 일시 : 2~4월, 6~8월 주중 운영
- 장소 : 드림센터 4층 배움터
- 신청 : 방문 상담 후 신청
- 문의 : 02-2015-8682

STEP 4. 이름학교

학교밖청소년 도시형대안학교

- 대상 : 학교 밖 청소년
- 인원 : 20명
- 일시 : 연중
- 장소 : 드림센터 4층 배움터
- 신청 : 이메일(eroom2015@hanmail.net) 접수
- 문의 : 02-2015-3747/9923







지금 힙합 무시하시는 거예요?

신성준 (가명, 15세, 이룸학교 재학생)



성준은 인터뷰이 중 가장 나이가 어린 친구였다. 전쟁보다 더 두렵다는, 학교에 다녔다면 중 2였을 바로 그 나이이다. 대안학교 수업이 없는 월요일에 학교에서 만났는데 인터뷰하기 싫은 기색이 역력했다. 처음부터 “얼마나 걸려요?” 하고 공격적(?)인 질문을 던지더니 질문마다 대충 답을 하고는 “됐죠?” “끝!” 하는 등 허세(?)가 계속되었다. 다행히 ‘척’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고 고맙게도 성준은 처음 만난 인터뷰어에게 비교적 많은 이야기들을 들려주었다.

성준은 서울에 살다가 11살쯤 충북에 있는 서당에 맡겨졌다. 초등학교 15명 정도 함께 숙식하는 서당에서 읍내 초등학교를 다니며 한 달에 1번 정도만 서울 집에 갈 수 있었다고 했다. 형이나 누나는 평범하게 집에서 학교를 다녔다는 걸 보면 부모님이 감당하기 힘든 아이였을 수도 있고, 집안만의 어떤 사정 있었을 수도 있겠다. 이유야 어찌되었건 10살 남짓 소년예겐 선뜻 감당하기 힘든 일이었음에 분명하다.

아이는 갇혀 있는 느낌으로 괴롭게 3년을 지냈다고 했다. 졸업한 뒤에는 다시 전라북도에 있는 고모집에 맡겨져 중학교를 다니다 아버지 직장이 있는 경기도로 전학을 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결국 학교를 그만두었다. 그제서야 아이는 원래 살던 서울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대체 10살 된 아이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 오랜 시간을 자신의 가족과 지낼 수 없었던 것일까.

아이는 이제 15살이 되었다. 강아지와 ‘힙합’을 좋아한다. 성준은 명실공히 자신이 다니는 <이룸학교>가 있는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 내 힙합크루 리더이다.(이 크루에는 학교 교사가 막내(?)로 활동 중이다.)

힘든 시기에 음악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행인가. 아이가 가지고 있는 힙합 뮤지션으로서의 꿈은 아직 허황되지만, 어쨌든 음악이 있는 삶은 그리 외롭지 않을 것이므로.

음악은 내 삶 맘속에 휘파람
거친 바람이 부는 현실에도
음악이 주는 따뜻함은 차가웠던
내 마음에 소중한 땀감

- CB MASS <휘파람> 중

자기가 태어날 때쯤 유행하던 오래된 음악의 한 소절처럼 거친 바람이 부는 현실에도 따뜻한 땀감처럼 오래오래 음악을 만날 수 있길. 괴로웠던 시절도 가식 없는 이야기로 뱉어내며 자신만의 ‘스웨그’를 찾을 수 있길.





서당에서 대안학교까지

성준 딱 한 시간만 합시다.

은진 그럴까? 오늘 인터뷰 끝나고 할 것 있어?

성준 조금 있다가 동네 가서 친구랑 피시방 가기로 했어요.

은진 그렇구나.. 학교 안 오는 날은 주로 피시방 가서 보내?

성준 피시방이나 노래방 가서 놀아요.

은진 학교에서 제일 나이가 어리다고 들었는데 형 누나들하고 같이 지내는 건 어때?

성준 그냥 그래요.

은진 음... 언제 이 학교에 오게 됐어요?

성준 모르겠어요. 한 1년 된 것 같은데.

은진 어릴 때 서당에 다닌 적이 있다고 들었어요.

성준 학교는 그냥 일반 학교예요. 근데 생활하는 집이... 약간, 아... 설명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생활만 서당에서 하는 거고 다닌 학교는 일반 학교였어요.

은진 아, 그러면 기숙사처럼 서당에서 생활하고 학교에 통학했다는 건가?

성준 네, 네. 그런 식이에요.

은진 그럼 학교 끝나고 서당에서 받는 교육도 있었어요?

성준 한자.

은진 사자소학 같은 거?

성준 네.

은진 그게 몇 살 때야?

성준 4학년이었나, 3학년이었나, 기억이 잘 안 나요.

은진 그럼 집에서 부모님과 살지 않고 서당에서 생활했다는 거네?

성준 네. 한 3년 동안.

은진 어떻게 보면 특이한 경험인데 어땠는지 좀 말해줄 수 있겠어요?

성준 싫었어요. 살면서 되게 싫었어요.

은진 3년이면 꽤 오랜 시간이다.

성준 네. 3년 동안 싫었어요, 주옥. 제가 약간 갇혀 있는 거 싫어하거든요. 근데 거기 약간 갇혀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은진 집에 있기 어려운 상황이었나요?

성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가 되게... 되게 괴로웠던 기억 밖에 안 나요. 한 달에 한 번씩 서울 집에 갔어요.

은진 그러면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는 서울에서 학교를 다녔고?

성준 네.

은진 그럼 부모님이 보내신 건가?

성준 네.

은진 가족과 떨어져 있기에는 좀 어린 나이였다는 생각이 드는데...

성준 아, 그런데 그건 상관이 없었어요. 4학년 초반에 '부모님 보고싶다' 이 생각 들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런 생각 안 들었어요.

은진 어쨌든 서당에 있었으면 한자 공부는 많이 했겠네?

성준 몰라요, 지금은 하나도. 별로... 별로 즐겁게 배운 게 아니라서 다 까먹었어요. 그냥 그때 한순간에만 안 혼나려고 익힌 거라서.

은진 그럼 충북에서 초등학교 졸업하고 나서는 어디로 갔어요?

성준 고모댁이요. 전북 ○○. 마을에 계신 분들이 거의 다 친척뻘인 동네.

은진 그럼 거기서 중학교를 다녔겠네?

성준 네. (하품)

은진 그러다가 학교를 그만두게 된 건가?

성준 아니요, 아니요. 그러다가 경기도 ○○로 갔어요. 학교는 거기서 그만뒀어요.

은진 경기도로 가게 된 이유는 뭐였어요?

성준 그때 제가 계속 집에 가고 싶다고 막 그랬어요, 아빠한테. 그래서 아빠가 너 하는 거 본다고 거기서 아빠랑 둘이서만 같이 살았어요. 누나랑 형이랑 엄마는 서울에 살고.

은진 그럼 아빠가 이사 오신 건가?

성준 어차피 아빠 회사가 거기였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살았는데 거기서 사고를 좀 많이 쳤어요. 막 뭐 싸우다가 그만뒀어요.

은진 친구들이랑?

성준 아니, 친구들이랑은 별로 그런 게 없었고요, 그, 뭐지, 선생님이랑 좀 싸웠어요. 약간, 그냥... (웃음) 별로... 어, 그냥... 그냥, 선생님 말을 잘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은진 선생님한테 불만이 많았나보지?

성준 선생님이 말하는데 제가 말을 계속 끊었거든요. 계속 듣기 싫어가지고, 그랬더니 막 때렸어요. 그게 그만둔 결정적... 선생님한테 계속 나대긴 했어요. 그 전에도, 그 나이 때는 그냥 선생님 말은 듣기 싫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랬어요. 그게 끝이에요. 여기 오기까지의.

은진 수업도 많이 빠지고?

성준 그런 건 별로 안 했어요. 조금. 어떻게 되든 학교는 싫지 않았어요. 그냥 그때 또 전학을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그냥 더 이상 전학 가기 싫었어요.

은진 전학을 많이 다녀서 전학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 같기도 해요.

성준 네. 그래가지고... 그냥, 그냥 그래요. 그냥 그래가지고 아빠 설득시켜서 그만뒀어요. 그리고 서울로 갔어요.

은진 형이랑 누나 있는 데로?

성준 네. 다시 동네 와 가지고... 전에 연락하던 애들 꽤 많단 말이에요. 그런 애들 다 연락하고 동네 친구 만들고 그런 다음 여기 대안학교로 왔죠.

은진 대안학교는 어떻게 알게 되었죠?

성준 엄마, 아빠가.

은진 형이나 누나도 초등학교 때 다른 곳에서 학교를 다닌 건 아니었나봐요?

성준 네. 그냥 그때 3, 4학년 때, 그때 제가, 제가 약간 문제 있었나봐요.

은진 그래서 서당에 가게 된 거라고 생각해요?

성준 약간... 한번 더 그러면 어디 보내버린다는 식으로 (부모님이) 말하다가 그랬던 것 같은데...

은진 억울하진 않았어요?

성준 지금 그랬으면 가출해버리죠. 안 간다고... 근데 그게 어차피 지난 일인데... 다, 잊어버렸죠. 지금이 즐거운데.

가출의

경험

은진 가출해본 적 있어요?

성준 세 번. 합쳐서 6개월 정도요. 서울에서 생활할 때요. 이 학교 같이 다니던 누나가 있었어요. 지금은 그만뒀지만... 어느 날 누나랑 시장에 강아지를 사러 갔어요. 뜬금없이. 근데 거기서 갑자기 둘 다 '뽀' 탄 거예요. 가출해야 되겠다, 하고.

가출 사이트 들어가서 정보 구했거든요. 몇 시간 만에 방을 구했어요. 여자면 잘 받아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저 친동생이라고 뺑치고 같이 방을 얻었어요. 스물세 살인가 네 살인가 된 형이 가출한 사람을 구하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겠는데... 아마 친구가 없나봐요. 외롭나봐요. 그래가지고... 근데 가출 사이트 보면 은근 10대보다 20대가 더 많아요. 집을 내놓은 사람이.

은진 게시판에서 집을 고를 때 어떻게 골라요?

성준 일단 남자도 받고 여자도 받는 데를 가야돼요. 집에 본인 혼자 사는 데가 좋고요. 우리는 둘이었으니까 집주인이 여러 명인 데보다는 혼자인 게 더 안심이 돼서. 그때는 되게 급해가지고 그냥 눈으로 보고 바로 구했어요. 피시방에서 몇 시간 만에 바로.

은진 그래서 방세를 내고 신세를 지는 건가?

성준 아니요. 그냥 얻어먹기만 했어요.

은진 밥은?

성준 피자나 자장면 먹었어요, 만날. 돈은 그 형이 계속 대주고요. 돈 없을 때는 라면 같은 것 먹고... 그러니까 거기 안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은진 **뭔가 큰 뜻이 있었을까, 그 형이?**

성준 아니요. 친구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냥 외로워가지고. 근데 지금 생각해도 약간 이상한 게 너무 착했어요, 그 형이. 화를 안 내요. 그 형이 불법오락실장 같은 데서 일했거든요? 저랑 같이 간 누나가 다른 가출한 사람들을 더 구해가지고 열한 명 정도 같이 지냈어요. 누나가 방 담당이었어요.

은진 **원룸인데 방이 어디 있었어요?**

성준 그 한 방이요, 그 집 담당.

은진 **그럼 집주인까지 열두 명이 그 원룸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성준 네.

은진 **물세, 전기세를 그 형이 다 내고?**

성준 네. 그러다가 그 집 주인이 우리 이상한 ‘조건’ 같은 거 하는 줄 알고 나가라고 했대요. 그래서 쫓겨나서 인천으로 갔어요. 거기서 집 주인 형이랑 같이 집을 새로 구한 거죠. 그때 한 네다섯 명은 나가고 한 다섯 명만 남았어요. 저도 인천에서 좀 지내다가 그냥 집으로 왔어요.

은진 **왜, 힘들었어요?**

성준 아뇨. 힘든 건 아닌데... 처음에 원룸이 서울대입구역 쪽에 있었거든요? 근데 인천에 있는 게 약간 그래가지고... 약간 집에서 너무 멀어져서.

은진 **집에서 너무 멀어져서 불안했군요?**

성준 네. 그래서 집에 왔어요. 누나한테 말도 안 하고 그냥 혼자 집으로 왔어요. 그러고는 똑같아요. 학교 오고, 피시방이랑 노래방 가고, 학교 가고... 이제 별로 가출하고 싶지는 않아요.

은진 **힘들어서?**

성준 지금 삶이 즐거운데, 할 필요가 없죠.

은진 **뭐가 즐거워요, 요즘?**

성준 **그냥 편해요. 힘든 것도 없고, 수업도 10시 반까지 오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일찍 서두르지 않아도 되고, 남들 학교 가는 월요일에 쉬고**

힙합은

‘쇼 미 더 머니’?

성준 지금 친한 사람들이 딱 두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말할 수 없고, 하나는 힙합 좋아하는 사람.

은진 **좋아하는 래퍼는?**

성준 전 제이 지(Jay Z)랑 나스(Nas). 한국에서는 피타입이랑 윤미래랑 가리온. ‘씨비매스(CB Mass)’라는 팀 있었는데, 그때 최자가 좋아요. ‘다이나믹 듀오’ 말고.

은진 **그렇구나. 주로 듣는 걸 즐겨해요, 아니면 직접 가사를 써요?**

성준 해보기도 하고 듣기도 해요. 이미 팀을 만들었어요.

은진 **진짜? 한번 들어보고 싶다...**

성준 뭘 들려줘요... 아직 아무것도 안 했어요. (웃음) 어떤 형이랑 처음 만들었는데 그 형이 심 씨고 제가 신 씨라서 '심신 클럽'.

은진 '심신 허약'은 언제? (웃음)

성준 아, 이거 빨리 넘어가요. 민망하거든요. 근데 우리 되게 잘해요. 심신크루.

은진 멤버는 남자만 있나요?

성준 네. 우리 계약 같은 게 있거든요. 여자는 받지 않는다. 여자는 어차피 안 들어올 거 아니까. 그냥.

은진 자존심 세우기?

성준 네, 네. 힙합, 힙합. 제가 리더고 심 형이 부리더예요. 현재 쌤(이룸학교) 교사)도 가입하셨어요. 총 세 명이에요. 현재 쌤 놀리는 재미로 살아요. '아, 쫄따구가 리더 말하는데 막!' 이러면서... 현재 쌤 이 우리보고 '꼰대'래요.

은진 학교 다니면서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다고 세운 계획 같은 게 있을까요?

성준 지금 중졸은 땃거든요? 검정고시. 고졸도 딸까 생각 중이에요. 아니면 학교 갈까... 애들이 오라는 학교가 있어서. 그리고 여기 꿈과 관련한 수업을 하거든요.

은진 진로?

성준 네. 저는 힙합 가수 아니면, 그냥 강아지 카페 사장. 저 강아지 엄청 좋아하거든요.

은진 강아지를 좋아해서 할 수 있는 직업은 강아지 카페 사장도 있지만 다른 것도 있지 않나?

성준 아, 근데, 저는 돈도 벌고 싶고... 돈이 우선이에요, 우선.

은진 돈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성준 네. 그냥 돈이면 다 돼요. 그냥 돈이면 다 되는 것 같아요.

은진 돈으로 할 수 없는 것도 있지 않을까?

성준 할 수 없는 것보다 할 수 있는 게 더 많아요. 그건 사실이잖아요.

은진 그런데 힙합해서 돈 벌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성준 어, 지금 무시하는 거예요, 힙합?

은진 (웃음) 아니, 그렇진 않고.. 래퍼로 '성공'을 이루기까지 굉장히 험난할 것 같다는 거지.

성준 요즘 힙합이 대세예요. <쇼 미 더 머니>. 저는 기획사를 만들 거예요.

은진 어떻게?

성준 우선, 대출을 해요, 돈을. 그 다음 유명한 래퍼들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활동을 해요. 제가 30% 씩 떼어서 대출을 갚아요. 개네 월급 주고, 저도 하고, 제가 제일 많이 벌 거예요. 아니면 소속사 들어가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하이라이트 레코즈' 팔로알토가 사장으로 있는. 아니면 '일리어네어'. 근데, 그 사람들이 안 받아주겠조...?

은진 가사 써 놓은 것 많이 있어요?

성준 조금. 왜요?

은진 궁금해서. 힙합 정신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성준 이야기. 자기 얘기 쓰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설득력 있고.



“원래 힙합은 자신의 불리한 것과 아픔을 숨기는 거예요. 자신의 약한 모습을 감추려고 더 세계 나가는 거예요.”

은진 가사 쓴 것 중에 하나 공개해줄 수 있는 건 없나요?

성준 안 해요. 저는 이거 나중에 써 먹어야 해요. 그래서 안 해요. 얼마큼 썼냐면요, 나중에 힙합 가수 됐다 했을 때, 거기까지 썼어요.

은진 가출했을 때 이야기는 안 쓰고?

성준 아, 그런 건 안 써요, 저는. 원래 힙합은 자신의 불리한 것과 아픔을 숨기는 거예요. 자신의 약한 모습을 감추려고 더 세계 나가는 거예요.

은진 그렇지만 그걸 이야기조차 하지 말자는 건 아니지 않아요?

성준 아, 근데 전 별로.... 아, 제가 안 쓰겠다는데 왜 그러세요, 대체~!

은진 (웃음) 미안. 힙합의 매력이 뭐라고 생각해요?

성준 힙합이요? 그냥, 가식이 없는 것.

은진 어쨌든 그래서 학교 힙합 동아리에서 열심히 하고 계신 거군요.

성준 동아리라 표현하지 마세요. 기획사! 요 옆 사무실이에요. 이제 끝이죠?

은진 이 학교 잘 온 것 같아요?

성준 네. 끝!

은진 끝나고 뭐 할 건데?

성준 몰라요. 내려가서 담배 한 대 피고 생각해봐야죠.





청소년 가출에 관하여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5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 번 이상 가출을 경험한 중·고등학생은 전체 중고생의 11%에 달한다. 10명 당 1명 꼴로 가출하는 셈이다.

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중·고교생의 생애 가출 경험률(12.2%)을 적용한 결과 가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무려 45만 명에 이르렀다. ...(중략)... 1회 이상 가출을 경험한 청소년 가운데 60% 이상이 첫손으로 꼽는 가출 원인은 '가정 불화'다. 부모와의 대화 부족이나 갈등, 폭력 등의 가정 문제가 청소년을 거리로 내몰고 있다는 뜻이다. 또 가출 청소년 가운데 부모의 이혼이나 보호자 부재로 가족이 해체돼 돌아갈 가정이 없는 홈리스(homeless) 청소년도 상당수 존재한다. 돌아갈 집이 없는 이들은 전국의 청소년 쉼터를 전전하며 뜻하지 않은 유랑 생활을 하기도 한다.

청소년 상담전문가들은 "가출 청소년의 비행은 낙인 찍기 이전에 가정을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한다. 대구청소년쉼터 강찬수 소장은 "우리 사회가 가출 청소년에게 '왜 집으로 돌아가지 않느냐'고 하지만 부모나 가정이 아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결국 가정이 변화해 자녀를 받아들일 역량부터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 CBS노컷 2015. 5. 19. <가정의 달 "집이 싫어" 거리 떠도는 '가출팜' 청소년>



경찰청의 '2012년 실종아동·가출인 접수 현황'에 따르면 가출청소년은 ▲2009년 1만5114명 ▲2010년 1만9440명 ▲2011년 2만434명 ▲2012년 1만9421명에 이른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실제 가출 청소년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수차례 가출을 반복해 부모가 신고를 포기하거나 상습적으로 집을 드나드는 청소년들은 통계에서 빠지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한 해 15만~20만 명 정도가 집을 나가는 것으로 보고 있다.

울타리를 벗어난 아이들은 각종 범죄환경에 그대로 노출된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1 청소년 유해환경접촉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출 청소년들이 돈을 벌기 위해 호프집·소주방(17%), 성매매업소(8%), 안마시술소(7.4%) 등 청소년유해업소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3년 간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 대책은 미흡한 수준이다.

정부의 대표적 가출청소년 보호대책은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청소년쉼터' 정도다. 현재 전국 92개 쉼터에 수용 가능한 청소년은 892명. 전체 가출청소년의 10%에도 못 미친다.

쉼터마다 거리로 내몰린 아이들을 직접 찾아 나서는 아웃리치(Out reach·봉사활동) 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이마저도 간식 제공, 길거리 상담, 범죄 예방 활동에 그치는 수준이다.

한 쉼터 관계자는 "제 발로 찾아오지 않는 아이들을 설득해서 쉼터 안으로 끌어들이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며 "가출팜을 경험한 아이들일수록 도움의 손길을 거부하는 경향이 심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아이들이 모여 다닐수록 범죄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박종배 금천청소년쉼터 지도부장은 "가출팜은 그들만의 방식으로 마음껏 생활하기 때문에 범죄환경에 노출되면 그 유혹을 이겨내기 쉽지 않다"며 "집단 내 통제 및 조절을 하는 역할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홍봉선 신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아이들을 방치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 위반이고 방임이자 학대"라며 "국가는 위험에 노출된 아이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복지 예산을 조기에 투입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 예산 중 청소년 관련 예산은 노인이나 장애인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소홀하다"며 "투자 개념으로 당장 눈앞의 결과가 드러나지 않더라도 꾸준히 청소년 복지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nlight@newsis.com 2013. 11. 4. 뉴시스 <10대 가출 팜 해방구 신림동 "범죄 유혹은 많고 보살핌은 없다"> 중





전 '일진'의 평범한 생활

도성민 (가명, 19세, 꿈에학교 재학생)



학교폭력이 이야기될 때마다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가 '일진'이다. 약자들을 골라 금품을 갈취하고, 심부름을 시키고, 폭행을 가하며 괴롭히는 당사자로 인식되는 무리. 그 일진을 일망타진해야 학교폭력 문제가 해결된다는 소리 또한 높다. 하지만 정작 우리는 그 일진이라는 무리 속에 어떤 아이들이 살고 있는지 어떤 속내를 가지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한다.

성민은 학교 일에 '앞장서는' 돈 있는 엄마를 둔 덕에 어릴 때부터 제멋대로 굴어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었다고 했다. 거리낌 없이 6학년 형들을 '패고' 다니던 초등학교 3학년 소년은 '일진' 중학생이 되었다.

학교는 작은 사회다. 요즘 아이들이 '솔직히 돈이면 다 되지 않아요?' 하고 말하는 것도 이미 우리 사회가 그러하다는 사실을 아이들도 감각적으로 알기 때문일 것이다.

돈과 '빽'이면 해결된다는 이 사회의 권력구조를 초등학교 소년이었던 성민은 이미 온몸으로 체화했을지 모른다. 그렇다면 이 아이의 일상을 싸움질과 유흥으로 덧입힌 장본인은 과연 누구일까.

중3 때 자신해서 '일진'은 탈퇴했지만, 그 뒤로도 정해진 수순처럼 '싸움→학폭위(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전학'이 두어 번 반복되었다. 그러다가 대안학교에 '위탁'되었고, 지금은 본교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 학교를 다니고는 있지만 점심시간 이외의 수업에는 통 관심이 없다. 성민에게 학교는 '친구를 만나는 곳' 이상도 이하도 아니기 때문이다.

성민을 인터뷰하면서 조금 우려스러웠던 건 그가 보는 세상이 다소 허황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기 때문이다. "솔직히 제가 대학 못 갈 것 같지는 않아요." "솔직히 제가 못 생겼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솔직히 그 정도는 물려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하는 확인 질문 속에 도사리고 있는 어떤 불안감 같은 것도 느껴졌다.

엄마의 '빽'과 친구들과의 '연대감'만으로는 안 되는 일도 세상엔 많이 있다는 것을 성인이 된 성민은 배워갈 수 있을까. 어떤 개인의 삶이 '막장 드라마'보다는 '다큐멘터리'가 되어야 세상에 그나마 희망이 있으므로...

이 아이의 졸업이 어떤 '세상'으로 한 발 내딛는 일이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본교로 못 돌아가는 이유

은진 여기 말고 다른 대안학교 있다가 왔다고 들었어요.

성민 네.

은진 어떻게 위탁됐는지 물어봐도 되나요?

성민 고등학교 1학년 때 전학을 갔거든요. 원래 1학년 9반이었는데 그 반에서 좀 안 좋은 사건이 있었어요. 약간 학교폭력을 했는데... 그 피해자 부모님이 선처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전학은 안 가게 되었는데 같은 반에 있는 건 부담스럽다고 하셔서 제가 반을 옮겼어요. 그런데 옮긴 반 담임선생님이 하필 저를 되게 싫어하시는 분이었어요. 정말 되게 싫어하세요. 저를. 제가 다니던 중학교 지역에 계시던 분이어서 얘기가 들어갔나봐요.

은진 음...

성민 보통 냄새가 나거나 무단외출을 하게 됐을 때 흡연 검사를 하는데, 그 선생님은 제가 외부활동을 나갔을 때 그냥 제 패딩 주머니를 막 뒤지셨어요. 당연히 담배가 나오죠. 학교에서는 자주 피우지

않았거든요. 그 전 담임선생님은 좀 봐 주시는 게 있었는데 이 반 담임선생님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학폭위(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열리게 되었고 서울로 전학을 갔어요. 엄마는 경기도 사시지만 아빠는 서울에 사시거든요. 전학 가자마자 어떤 애랑 싸웠는데 그 애가 저한테 많이 맞았어요. 그 학교에서 대안학교를 추천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알아보니깐 원래 다니던 학교 졸업장도 나오고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고 1 때 D 대안학교를 다녔죠. 저 본교로 못 돌아가거든요.

은진 못 돌아가다니?

성민 벌점이 너무 많아서 본교에서 오지 말라고 해요. 가면 잘려요. 무조건. 고 2 때 재위탁했는데 그 대안학교는 흡연이 안 되거든요. 제가 많이 필 때는 하루에 2갑씩 피웠어요. 그러면 안 됐는데 점심 시간에 흡연을 하다 걸린 거예요. 그래서 잘렸어요. 4월부터 다니다가 9월 중순쯤 잘려서 G학교로 갔어요. 거기 10월부터 12월까지 다니고 올해 이 학교에 온 거예요.

은진 아까 학교폭력이 아니라 싸움이라고 했잖아요. 그 둘의 차이는 뭐지?

성민 제가 고 1 때 학교폭력을 했었다고 했잖아요? 그건 제가 집단으로 몇몇 아이들한테 길 가다 툭 툭 치고 큰돈은 아니었지만 돈도 좀 갈취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래도 전학 간 학교 애들은 저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어떤 애가 절 툭툭 건드리면서 '싸움'이 된 거죠. 사실 그 친구가 저를 먼저 때린 건 맞는데 제가 개를 훨씬 많이 팼거든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는 일방적인 폭행 사건이 된 거죠.

은진 원래 화가 났을 때 조절이 잘 안 되나요?

성민 네. 그것 때문에 몇 번 병원도 다녀왔어요. 분노조절장애까지는 아닌데 욕 하는 게 좀 있어요. 저희 가족들이 다 다혈질이에요.

은진 이 학교 와서는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성민 평범하게 지내는데요? 그냥 애들이랑 평범하게 지내고 있어요. 밖에서 좀 만나고.

은진 **고등학교 들어와서 3번째 옮긴 위탁학교인데 학교마다 다 색깔이 다르죠?**

성민 D학교는 애들이 다 착해요. 그렇다고 안 노는 건 아닌데, 놀 건 놀면서 할 건 다 하는 착한 애들이라 거기 가면 제가 이상한 놈이 되요. 제가 다혈질이기도 하고 사이코 같은 면도 있대요. 애들이 되게 산만하고 애들이랑 있을 때 미친 듯이 날뛰거든요. G학교는 별로 안 다녔으니까 잘은 모르지만 거기에는 중간이 없었어요. 학교폭력 당해서 온 아이들도 있었고 완전 노는 애들도 있었고, 여기는 노는 애들은 대차게 노는데 여기 애들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은진 **수업은 재밌어요?**

성민 네, 괜찮아요.

은진 **오늘은 무슨 수업해요?**

성민 모르겠어요.

은진 **(웃음) 어떤 시간이 제일 좋아요?**

성민 점심시간이요.

어느 날
‘일진’이
되어
있었어요

은진 **초등학교 시절은 어떻게 보냈어요?**

성민 그때부터 엄청 싸우고 다녔던 것 같아요. 제가 되게 왜소했거든요? 근데 저희 엄마 기가 되게

세요. 제가 1학년 때 저희 엄마가 전교어머니회장 같은 걸 할 정도였어요. **엄마가 학교에서 왕처럼 하니까 저도 그렇게 행동하고 그랬어요. 한번은 엄마가 30만 원을 들어서 머리를 해줬어요. 긴 노랑머리였어요. 엄마가 외동이니까 저한테 원하는 걸 다 해주고 그러니까 무서운 게 없었어요** 그래서 성격을 좀 버린 것 같아요.

은진 **그 시절 돌이켜보면 어떤 것 같아?**

성민 후회되는 건 없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쯤 엄마 아빠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경기도 ○○로 이사 온 거예요. 초등학교 고학년 때는 텃세가 좀 심하잖아요. 그렇지만 뭐가 무섭겠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초등학교 6학년 형들 때리고 다녔는데... 어쨌든 전학 가서 만날 싸웠어요. 주로 축구하다 많이 싸우게 되는데, 태클을 심하게 걸거나 공을 패스해야 하는데 골을 넣었을 때 안 들어가면 욕하잖아요. 그러다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축구하는 애들이 또 노는 애들이란 말이죠. 그러다보니 이런 얘기하기 쪽팔리는데 ‘일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은진 **일진이다 아니다의 기준이 있나?**

성민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싸움을 잘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중학교 딱 올라가면 형들이 찾아와요. “가입할 의향 있냐?” 해요. 사실 형들이 그러는데 중 1이 당연히 가입한다 하죠. 근데 저는 중 3 때 일진 나왔어요. 그 전에 나간다면 형들이 뭐라 하거든요. 그걸 제가 알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중 3 때 나온 거죠.

은진 **일진이 기대했던 거랑 달랐나? 안 하고 싶었던 이유는 뭐야?**

성민 아뇨, 그냥 솔직히 다른 게 없어요. 그걸 ‘멤버’라고 하거든요? 근데 멤버 아니더라도 피시방 가고 술 먹고 똑같이 놀잖아요. 다만, 애들이 저희를 보는 눈이 다르달까? 그리고 애들한테 돈을 가지고 오라고 하면 가지고 와요, 알아서. 근데 선생님한테 찍히잖아요. 그게 정말 싫었어요. 그래서 나왔어요.

은진 **선생님한테 찍히는 것 상관없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성민 저희 엄마 아빠가 이혼했을 때라 엄마가 힘들 때였어요. 저희 외할아버지가 돈이 굉장히 많은

분이세요. 근데 자식들한테 일절 돈을 안 주세요. 그래서 직장 구하러 다니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문제를 일으키면 엄마가 학교에 불러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더 힘들어질거니까... 그래서 나 왔어요.

은진 사람들은 ‘일진’이라고 하면 무서워 하는 경향이 있잖아.

성민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어려 보이는데 여자애들이랑 술 먹으러 다니고 오토바이 타고 그러는 정도. 길바닥에서 시비 붙어서 소리 지르고 몽쳐 있고 그러면 안 좋아 보이죠. 저희 애들은 제가 통솔했는데 그래도 심하게 때리지는 않았어요. 근데 일진들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은진 보통 초중고가 연결이 되어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성민 초등학교는 심하지 않지만 중고등학교는 연결이 다 되어 있죠.

은진 근데 중학교 때 나오는 게 힘들진 않았어?

성민 그 형들도 잘했다고 하던데요. 요즘도 저는 일진 하던 애들이랑 선배들도 만나고 그래요.

돈이
많으면
좋겠어요

은진 꿈이 바텐더예요?

성민 바텐더였죠.

은진 지금은 바뀌었어요?

성민 네. 딱히 하고 싶은 건 없는데, ‘지잡대’ 말고 전문대나 4년제라도 괜찮은 데 갈 수 있으면 가고 아니면 돈 모아서 술집 차리고 싶어요. 저희 외할아버지가 돈이 많거든요. 그 돈 일부를 몇 억 정도 받고 알바를 한 10년 간 해서 위치 좋은 데 술집 차리고 싶어요. 물론 도박이죠. 그 술집 말아먹으면 그때부터 인생 말아먹는 거지만...

은진 할아버지가 상속을 해주실 거라 믿고?

성민 한 10년 뒤면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가능성이 높고 그 자산이 엄마한테 갈 거니까 한 10억만 받아도 충분히 차릴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한 1억을 모은다 치고, 10년 부모님께 신세 지면서 일하면 1억 못 모으겠어요?

은진 다른 가게가 아닌 술집을 하고 싶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성민 아뇨, 딱히... 저 문신하는 거 좋아하거든요.(성민은 어깨와 가슴에 큰 문신이 있다.) 근데 문신 같은 것 하고 직장생활하면 눈치 보이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처음에는 ‘바’를 생각했었는데 바는 독창적이어야 하잖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바도 돈을 많이 벌 줄 알았는데 요즘은 고깃집 체인점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알바를 해 보니까 의외로 고깃집이 남는 게 많더라고요.

은진 돈 많이 벌고 싶어요?

성민 당연하죠. 왜냐면 솔직히 대한민국에서는 돈이 전부잖아요. 제가 원하는 행복은 돈이 많이 드는 행복이거든요.

은진 예를 들면?

성민 여행을 가거나, 원하는 차를 사거나 그런 거요. 그렇다고 돈으로 사람을 살 수는 없지만... 솔직히 제가 원하는 여자를 만나려고 해도 돈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얼굴이 진짜 못생겼거나 나이가 많은데 여자가 꼬이면 그건 돈만 보고 만나는 거겠지만 얼굴이 요만큼은 되고 돈도 많으면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솔직히 제가 못 생겼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은진 (웃음) 그래요. 못생기진 않았어요. 그런데 돈이 많으면 원하는 여자 만날까?

성민 그럴 것 같아요. 처음엔 돈 있는 걸 말하지 말고 사귀는 거죠. 그래도 한동안 잘 사귀면 저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거겠죠. 제가 돈을 많이 번다면 여자를 만날 때 그렇게 시험해 보고 싶어요.

은진 만일 돈이 없다면?

성민 돈이 많으면 좋긴 좋은데, 사실 자식들 먹일 정도로만 벌어도 좋을 것 같아요. 부귀영화를 누리진 않아도 돼요. 그렇다고 가난하게 살기는 싫고요. 예를 들어 5년에 한 번씩 차 바꾸고 자식 교육시 킬 정도. 집도 크지 않고 한 20평? 그 정도에서 살고 싶고 그래요.

은진 그런데 돈을 충분하게 버는 게 결코 쉽지 않은 세상이잖아.

성민 그렇죠. 그래서 엄마한테 미리 얘기해놔어요. 한 20억 받아도 엄마는 남는 돈이 많을 거니까. 솔직히 엄마가 못해도 50억은 받을 것 같거든요? 그중에 제가 20억 가져간다 해도... 엄마도 '네 생각이 그러면 그러든지,' 그래요.

은진 음... 그런데 할아버지가 사회에 환원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성민 아, 진짜, 그러면 저 자살할 거예요. 장난으로. 근데 진짜 그럴 수도 있어요. 저희 할아버지. 그래서 진짜 불안해요. 아, 불안해... 외할아버지가 가뜩이나 그런 성격이셔서... 그러면은... 이제, 뭐... 솔직히... 따지고 생각해 보면 대학을 가면 어떻게 되는 거고, 대학을 못 가도 잘하는 사람은 잘 살잖아요. 그 돈 없이도 잘 모아서 사는 사람 많잖아요. 어떻게든 된다고 봐요. 이 정도만 해도 깊게 생각한 편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현실에 충실한 삶을 살고 싶어요.

은진 대학 가고 싶은가봐요?

성민 지금 제 친구들이 다 대학 간다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만 대학 안 가면 '아싸'될 것 같아서. 그냥 집에서 틈틈이 공부하고 있어요. 가끔씩. 잠 안 올 때랑 게임하다 질렀을 때 공부해요.

은진 그런데 이제 준비할 시간이 많지 않잖아?

성민 수능 점수만 잘 나오면 돼요. 제가 또 공부를 못하는 편이 아니에요. 여기서 1등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될 거라 봐요. 수학만 빼고. 수학은 정말 전교 꼴찌 해봤어요. 4점으로. 1문제만 더 틀렸으면 빵점이었는데...

은진 (웃음) 기둥 세웠으면 훨씬 높게 나왔을텐데... 능력자네... 그런데 대학에서 공부하고 싶은 게 뭔데?

성민 공부 안 할 거예요. 그냥 졸업장 따러 가는 거예요. 친구들이랑 놀고. 제가 대학 안 가면 친구들은 엠티 가서 술 먹고 노는데 저는 놀 친구가 없잖아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제가 대학 못 갈 것 같지는 않아요. 가기만 하면 외할아버지가 등록금 다 내주시고, '인-서울'하면 원하는 차 사준대요. 근데 '인-서울' 4년제는 좀 힘들 것 같고... 어쨌든 등록금 걱정은 안 해도 돼요.

은진 그렇다면 전공도 상관없겠네?

성민 네, 졸업장을 목표로 하는 거니까... 그런데 회사 갈 때 전공 많이 따져요?

은진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본인 인생에서 학교는 어떤 곳이었어요?

성민 학교는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곳이죠. 제가 친구 관계를 제일 중요시하거든요. 아무리 제가 돈이 많아도 그 돈을 갖고 같이 놀 친구가 없다면 안 행복할 것 같아요. 혼자 여행 다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있어도 혼자서 술 마시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인맥이 돈보다 중요하다 생각해요. 진정한 친구들이라면 제 직장을 알아봐줄 수도 있고요.

은진 진정한 친구란 뭘까?

성민 진정한 친구요? 여럿이 가고 있는데 한 명이 넘어지잖아요? 보통은 그 친구를 일으켜주잖아요. 진정한 친구라면 그 친구가 쪽팔릴 것 같으니까 다 같이 넘어져 주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개
꿀
인
생

정글에서 살아 남기

2장

'대치동 키드'
연대기 이찬승

반도의 흔한 김영재

아무도 모른다 박수호



‘대치동 키드’ 연대기

이찬승(가명, 18세, 꿈에학교 재학생)



찬승은 조용하게 말을 이어갔다. “그냥 ‘문상’ 준다
고 해서 온 거예요.” 하고 시종일관 ‘쿨’한 태도로
이야기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부모님 이야기
를 할 때나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 이야기를 할 때
면 그 시니컬함이 싸악 사라지면서, 정 많고 여린
소년의 얼굴이 되곤 했다.

찬승은 사립초등학교에 입학하자마자 ‘나인 투 식
스(9시~6시)’도 아닌, ‘세븐 투 텐(7시~10시)’ 생
활을 시작(해야만)했다. 몸통보다 큰 책가방을 멘
1학년 꼬마는 학교가 끝나면 대치동 학원가에서 밤
10시까지 ‘공부’를 했다. 8살 아이는 엄마가 시키는
것이라면 뭐든 열심히 했다. 엄마도 그것이 아이를
위한 최선의 길이라 생각했으리라.

착하고 공부도 잘하던 초등학생은 결국 (본인 표현
에 의하면) ‘망나니’ 중학생이 되었다. 학교에서 머
무는 시간보다 거리에서 배회하는 시간이 많아졌
고, 특하면 아이들을 괴롭히고 못된 짓을 일삼았다.
고등학교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애들 앞에서
엄마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를 내뱉는 교사에게 빗
자루를 던지고 욕을 했다는 이유로 ‘퇴학’ 처분을
받게 되었고, 한 교사의 소개로 대안학교에 위탁되
었다.

새롭게 다니게 된 대안학교는 어떠냐고 물었을 때
찬승은 자기 같은 아이를 무시하지 않고 다 데리고
가려고 하는 점이 ‘고맙다’고 했다. 잠자는 자신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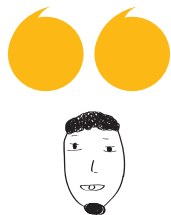
깨워주는 것도 순간 화는 나지만 ‘고맙
다’고 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엄청난 수의 어린이들
이 대한민국의 살벌한 입시 정글에서 인
권을 유린당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수많은 10대들, 그러니까 제2, 제3의 찬
승이들이 거리를 배회하고 있을 것이다.
어쩌면 그 살벌한 정글에서 튕겨 나가거
나 포기하지 않고 꾸역꾸역 버티는 사람
이 남아서 이 세상은 조금씩 더 무시무
시한 정글이 되어가는지도 모르겠다.

이제 18살이 된 찬승은 “엄마의 기대치
가 낮았으면 엄마도 좋고 나도 좋았을
텐데...” 하고 나지막이 말했다. 하지만
“엄마한테 항상 미안하다”고도 했다.

찬승이와 인터뷰를 하는 내내 ‘누구의
잘못인가’ 하는 질문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한 가지 분명한 건, 아이들의
방향이 그 아이들 개인의 잘못은 아니라
는 것이다.





평범하진 않은 평범한 열여덟

은진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 소개를 해본다면?

찬솔 그냥 평범한 열여덟 살 학생이죠. 그냥 하고 싶어 하는 것 하는 걸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 별로 안 좋아하는 좀 그런. 뭐, 하긴, 제가 평범하진 않죠.

은진 그러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줄 수 있어요?

찬솔 좋아하는 것은 재미있는 것. 내 생각에 도움이 되는 것.

은진 생각에 도움이 되는 것?

찬솔 나중에 뭐 먹고 살지... 뭐 그런 거요. 그리고 운동하는 거랑요.

은진 운동은 몸으로 하는 거 아닌가?

찬솔 근데 머리로 계획을 하니까요.

은진 운동을 좋아하나보네. 어떤 운동해요?

찬솔 헬스요. 좀 균형 잡힌 몸매, 보기 싫지 않은 몸을 만들고 싶어요. 이거 말고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은진 하루에 몇 시간씩 운동해요?

찬솔 두 시간씩 해요. 처음에는 트레이너한테 했었는데 지금은 혼자 해요. 근데 요즘 뭘 해도 재미가 없어요. 운동도 옛날 같지 않아요. 좀 하다 보니 근육이 안 크는 시기예요.

은진 그럼 싫어하는 건?

찬솔 귀찮은 것들. 글자 딱 써 있고 각 잡힌 공부가 싫어요. 뭐라 해야 되지? 정해진 대로 다 해야 하는 공부잖아요. 수학 같은 건. 그런데 제가 어릴 때 너무 안 해 봐서 지금 시작하기는 힘들어요.

은진 만약에 체육 같은 게 지금의 국영수만큼 중요한 과목이었다면 어땠을까?

찬솔 그건 모르는 일이죠. 그렇게 됐으면 또 안 했을 수도 있겠죠. 책 읽는 건 되게 좋아했었어요. 어렸을 때. 근데 지금은 재미있는 것들이 많아졌으니까... 지금은 거의 안 읽는다고 봐야죠.

은진 요즘 10대들은 모바일이나 게임 같은 걸 좋아하지 않나?

찬솔 핸드폰엔 딱히 목숨 걸지 않아요. 없어도 살 수 있어요. 딱 전화만 되면 되요. 친구들이랑 어울리니까 확인하는 수준에서. 피시방 가서 어울리는 정도.

여덟 살 인생, ‘세븐 투 텐’

은진 어렸을 때 공부를 안 했다고 했잖아요. 그게 언제부터예요?

찬솔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는 열심히 했어요. 초등학교 때는 되게 잘했어요. 그런데 제가 중학교 때 방
황한 게 그것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너무 집혀 있어서...**

은진 부모님께서 하라는 게 많았어요?

찬솔 네. 좀 되게 많았어요. 제가 사립초등학교 다녔거든요? 7시에 나와서 밤 10시에 들어가고 그랬
어요.

은진 초등학교 때 집에서 7시에 나갔단 말이에요?

찬솔 네. 1학년 때부터 교복 입고 스쿨버스 타러 졸래졸래 나갔어요.

은진 10시에 들어왔다는 건 학원 때문이었을까?

찬솔 네. 학교에서 한 4시쯤 끝나면 학교 버스 타고 학원 앞에 내리고, 학원에서 10시에 끝나면 학원
버스 타고 집에 왔어요.

은진 학원에서 뭘 배웠는데?

찬솔 영어, 수학, 국어... 여러 가지 다녔죠.

은진 그럼 언제 놀아요?

찬솔 못 놀았어요.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놀긴 했지만 놀았던 생각이 안 들어요.

은진 초등학교 1학년이 소화하기엔 힘든 일정이었을 텐데...

찬솔 그렇죠. 근데 또 후회도 되는 게, 중학교 때 안 놀고 열심히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
요. 엄마 마음이 이해가 가요. 물론 학원 가끔씩 빼먹기도 했죠. 오락실 가고... 그땐 또 그런 재미에

살았던 것 같아요.

은진 일탈의 재미?

찬솔 네. 그러고 나서 또 뒤지게 혼나고... 뭐, 그랬죠.

은진 학원에서 학원으로 이동하는 것도 초등학교 저학년이었으면 쉽지 않았을 텐데.

찬솔 대치동은 거기가 다 거기니까요. 같은 학교 다니던 친구들도 대부분 그렇게 생활했던 것 같아요.

은진 그렇게 학원을 다니면 저녁식사는 어떻게 해요?

찬솔 밥은 그냥 도시락 먹거나 엄마가 가끔 와서 같이 먹었어요.

은진 그런데 보통 고학년 되면 머리도 크고 하고 싶은 것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찬솔 그래서 중간에 스케이트도 한번 탔어요. 엄마한테 엄청 쟁쟁대가지고... 스피드스케이트를 배웠
는데 전국대회에 나가서 2등 했었어요.

은진 우와, 굉장히 잘했었네... 얼마나 했어요? 운동 계속 하지 그랬어요?

찬솔 스케이트는 5학년 때쯤 1년 반 했는데, 학교 끝나고 가서 운동만 하니까 그게 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은진 지금도 잘 타겠네?

찬솔 글썄요... 안 탄 지 너무 오래 됐어요.

은진 그렇게 힘들었어요, 운동하는 게?

찬솔 네, 죽을 것 같았어요. 대회 있으면 진짜 주말도 없고.

은진 주변에서 많이들 아까워하셨을 것 같은데.

찬솔 아까워했죠. 학교에서 스케이트 타러 간 적이 있었는데 그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했던 건데... 운동 그만두고부터는 그냥 반향했죠.

은진 어머니 기대가 너무 커서 부담스럽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

찬솔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기대가 너무 컸다. 엄마의 기대치가 좀 낮았으면 엄마도 좋고, 나도 좋았을 텐데...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짜증나고, 엄마는 제가 기대치에 못 미치니까 짜증나고 그랬겠죠.

두 학교 이야기

은진 어렸을 때 똑똑한 아이였을 것 같아.

찬솔 지금도 똑똑해요. 공부 잘했어요. 뭐든지 열심히 하는 편이어서.

은진 (웃음) 중학교 생활은 어땠어요?

찬솔 그냥 망나니였죠. 애들 괴롭히고, 시비 걸고, 때리고... 그랬었죠.

은진 결석도 많이 하고?

찬솔 네. 유급되기 이틀 전에 학교 나가고 그랬어요. 선생님이 알려줘요. 더 빠지면 유급이라고... 중학교 때 한 150일은 빠진 것 같아요.

은진 학교 가면 자고?

찬솔 저는 안 잤어요. 놀았어요. 중학교 때는 뭐든지 다 재밌었던 것 같아요. 교생 선생님 막 울리고 그랬어요. 그때는 재밌었죠.

은진 중학생 나이 때는 좀 뇌가 특별해지는 시기인 것 같지 않아?

찬솔 뇌가 없죠. 잠깐. 저는 그냥 담배 피고, 선생님 놀리고... 그때는 제가 잘못하고도 제가 화내고 그랬어요.

은진 그러게. 중학생들은 왜 그럴까? (웃음)

찬솔 북한이 중학교 2학년 무서워서 안 쳐들어온다잖아요. 한참 그럴 나이죠. 몇 년 안 지났지만, 저도 그랬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요. 너무 쪽팔려요.

은진 (웃음) 지금 보면 다 보이잖아...

찬솔 다 보이죠. 제 나이만 되어도 다 보이는데...

은진 그때 친해진 형들이나 친구들하고는 요즘도 연락하고 지내요?

찬솔 요즘엔 안 봐요. 거의.

은진 일부러?

찬솔 네. 새 삶을 살려고요. 물론 저도 똑같이 어울렸지만 이제는 좀 다르게 살려고요.

은진 새 삶을 살겠다고 생각하게 된 계기라도 있는 건가?

찬솔 심사원 갔다 와서부터요. 진짜 이렇게 살면 나중에 아무것도 할 게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미래가 안 보여요. 깜깜해요.

은진 보호관찰 대상자가 되었다는 게 암담했구나?

찬솔 네. 지워지긴 한대지만 당장 관찰당하고 있으니까... 이제 진짜 잘못하다가는 징역 가겠구나, 그거죠.

은진 중학교 때 뇌가 없이 지내다가 고등학교 가서는 어땠어?

찬솔 고등학교부터는 자숙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올해 한번 잘못해서 (심사원) 갔다 왔죠. 마음이 불안했죠. 엄마가 걱정하는 것도 그렇고.

은진 대안학교에 오게 된 건 언제부터야?

찬솔 일반 고등학교 두 달 다니다가 다른 대안학교를 가게 됐고 2학년 올라오면서 이 학교에 오게 됐어요. 1학년 때 학교에서 좀 자고 담배 피우고 걸리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선생님이 애들 다 있는 앞에서 저희 엄마한테 모욕이 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화가 나서 참을 수 없더라고요. 제가 잘못했으니까 저한테 하는 건 다 참겠는데... 그때 선생님한테 빗자루 던지고 욕하고 그랬어요. 지금 생각해도 열받네요. 그래서 퇴학 처분 당했어요.

은진 처벌이 좀 심하다는 생각은 안 들었어요?

찬솔 심하다고 생각했죠. 근데 제가 잘못된 건 맞으니까 할 말은 없죠. 징계위원회가 회부됐다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퇴학이라고... 저희 어머니랑 저랑 교장 선생님이랑 생활지도부 선생님 몇 명 있었는데... 퇴학이래서 알겠다고, 더러워서 안 다닌다고 그랬어요.

은진 어머니는 뭐라하셨어?

찬솔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속상하다고...

은진 그런데 그만두지 않고 위탁형 대안학교에 다니게 되었네요?

찬솔 부담임선생님인가? 다른 선생님이 알려주셨어요. 이런 제도가 있다고.

은진 대안학교에 처음 가보니 어땠어?

찬솔 새로웠죠.

은진 학교랑 많이 다르던가?

찬솔 네. 절 좀 그냥 이해해주려고 하더라고요. 원래 학교에서는 저 같은 애들 그냥 무시하잖아요. 대안학교 같은 경우에 다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건 좀 고맙죠. 잠자는데 깨우기도 하고.

은진 잠자는데 깨우면 싫을 수도 있잖아.

찬솔 싫으면서도 고마웠어요. 깨우면 화나기는 하는데, 이 사람이 진짜로 나를 챙겨주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은진 지금 다니는 대안학교는 어때?

찬솔 너무 좋아요. 선생님들도 좋고, 애들도 좋고, 다 좋아요. 진짜로. 하나도 욕할 게 없어요.

은진 여기도 올해 말까지 다니고 다른 학교로 가야 하나?

찬솔 일 년 더 다닐 수 있으면 더 다니려고요. 여기서 배우는 것들도 재밌고.

은진 예를 들면 어떤 것?

찬솔 사회 좋아해요. 사회라고 하면 일반 학교에서는 딱딱한 것만 배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나중에 써먹을 만한 것들도 많이 얘기해주세요.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한다고 그랬을

때 유류분 제도라고 상속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시니까...

은진 (웃음) 상속받을 재산이 많이 있나봐.

찬솔 꼭 그렇다기보다는... 나중에 진짜 써먹을 데가 있겠구나 하면서 열심히 듣죠. 사회가 제일 재밌어요.

꿈과 현실 그리고 가족들

은진 원래 학교에 적을 두고 대안학교에 다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찬솔 아무 생각 없어요. 현재에 충실하자... 지금 학교 열심히 다니자. 일단 단기목표는 학교를 졸업하고 군대를 다녀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 밑에서 일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봐야겠죠.

은진 아버지가 회사를 경영하시나봐?

찬솔 네. 그런데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외국어 3개는 해야 돼요. 영어, 중국어, 일어요. 근데 중국어가 너무 어려워요. 초등학교 때 잠깐 중국어 했었는데 너무 어려워요.

은진 그래서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을 수는 있지만 외국어가 안 돼서 고민인 거야?

찬솔 네. 어떻게 해야할지... 자격증 생각도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되면 중장비 자격증 따려고요. 포크레인이나 지게차. 일단 면허를 따고 2년 있어야 대형 면허를 딸 수 있어요. 그래서 내년 생일 지나면 면허를 따고 군대를 갔다 와서 공부하려고요. 두 개 중에 뭘 하는 게 더 좋을까 매일 생각해요. 요즘엔 중장비 쪽으로 기울고 있어요.

은진 대학을 갈 생각은 없고?

찬솔 대학을 가보고 싶긴 한데 서울 아닌 데 가는 게 쪽팔려요.

은진 공부해보고 싶은 게 있나?

찬솔 편드요. 재밌을 것 같아요. 돈이 빨리빨리 움직이잖아요.

은진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이었으면 좋겠다 생각해본 적은 없어? 돈 많이 버는 것 말고.

찬솔 딱히 없어요. 하고 싶은 일 한다고 평생 재밌는 게 아니잖아요. 뭘 해도 똑같은 것 같아요.

은진 중장비를 따야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뭐야?

찬솔 일단 현실에 제일 가깝잖아요. 그냥 막일하는 것보다는 중장비 자격증이라도 따서 일하는 게 훨씬 나으니까.

은진 어떤 직업들이 있는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조금 다양하게 알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찬솔 노력해야죠.

은진 앞에서 한 얘기 요약하자면, 요즘 재밌는 것도 딱히 없는 상태에서 예전과 달리 살아야겠다 생각하면서 앞으로 뭘 하고 살지 갈팡질팡하면서 지내고 있다는 거네?

찬솔 딱 그거예요. 요즘 마음 기댈 곳이 없어서 고양이를 한 마리 샀어요. 그래서 요즘 밖에 안 나가요. 너무 좋아요. 고양이한테 100만 원 썼어요.

은진 아니, 뭘 하는데 100만 원이나?

찬솔 점심 맞추고, 밥 좋은 것 먹이고, 50만 원짜리 '캣 타워' 사 주구요.

은진 캣 타워 같은 건 직접 만들어주는 것도 괜찮지 않아?

찬솔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 걸 사 줘야 파는 사람도 먹고 살죠.

은진 롤모델 같은 것 있어?

찬솔 네. 있어요. 아빠요. 아빠처럼 살고 싶어요. 공과 사가 너무 확실해요.

은진 그게 멋져 보여?

찬솔 네. 저는 정이 많아서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아빠는 그걸 딱딱 잘하세요. 가정에만 좀 잘하면 완벽해요.

은진 아버지가 사회적으로 성공한 모습이 멋있어 보이는 모양이네.

찬솔 대통령 상도 받았어요. IMF 때 외화 많이 벌어서요.

은진 아버지하고 대화도 좀 나누고 그래?

찬솔 어릴 땐 아예 안 했거든요? 요즘은 조금 해요. 뭐 하고 살지... 그런 얘기도 나누고, 조언도 해 주시고요. 뭐래도 부모가 최고죠.

은진 부모님이 요즘은 찬솔이를 많이 믿어주신다는 생각이 들어?

찬솔 그럼요. 어릴 때부터 들었어요. 엄마한테는 항상 미안하죠. 나중에 성공해서 엄마 헬기 태워준다고 했어요.





보호관찰에

대하여

보호관찰제도란

범죄인을 교도소나 소년원 등 수용시설에 구금하지 않고 가정과 학교 및 직장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도록 하되,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을 통해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하고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을 이행하도록 하여 범죄성을 개선하는 형사 정책 제도.

보호관찰제도의 장점

1. 인권친화적 형사 정책

범죄인을 교도소나 소년원에 구금하여 가정, 직장, 사회로부터 단절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존의 가족관계 등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본인이나 가족이 겪어야 하는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줄일 수 있다.

2. 뜻있는 민간자원봉사자·단체 등 참여 가능

보호관찰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뜻있는 민간자원봉사자나 단체가 함께 범죄인을 선도해 나갈 수 있다.



보호관찰 실시 방법

1. 보호관찰

보호관찰은 대상자와 수시 면접, 주거지 방문 등 긴밀한 접촉을 가지고 항상 그 행동 및 환경 등을 관찰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직업 훈련, 취업 알선, 복학 주선, 경제적 지원 등을 통해 원활한 사회복귀를 추진한다.

예) 보호관찰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부과하는 사항 : 특정 지역 및 장소 출입 금지, 피해자 등 특정인에 대한 접근 금지, 야간 등 특정 시간대 외출 제한 등

2. 사회봉사명령 집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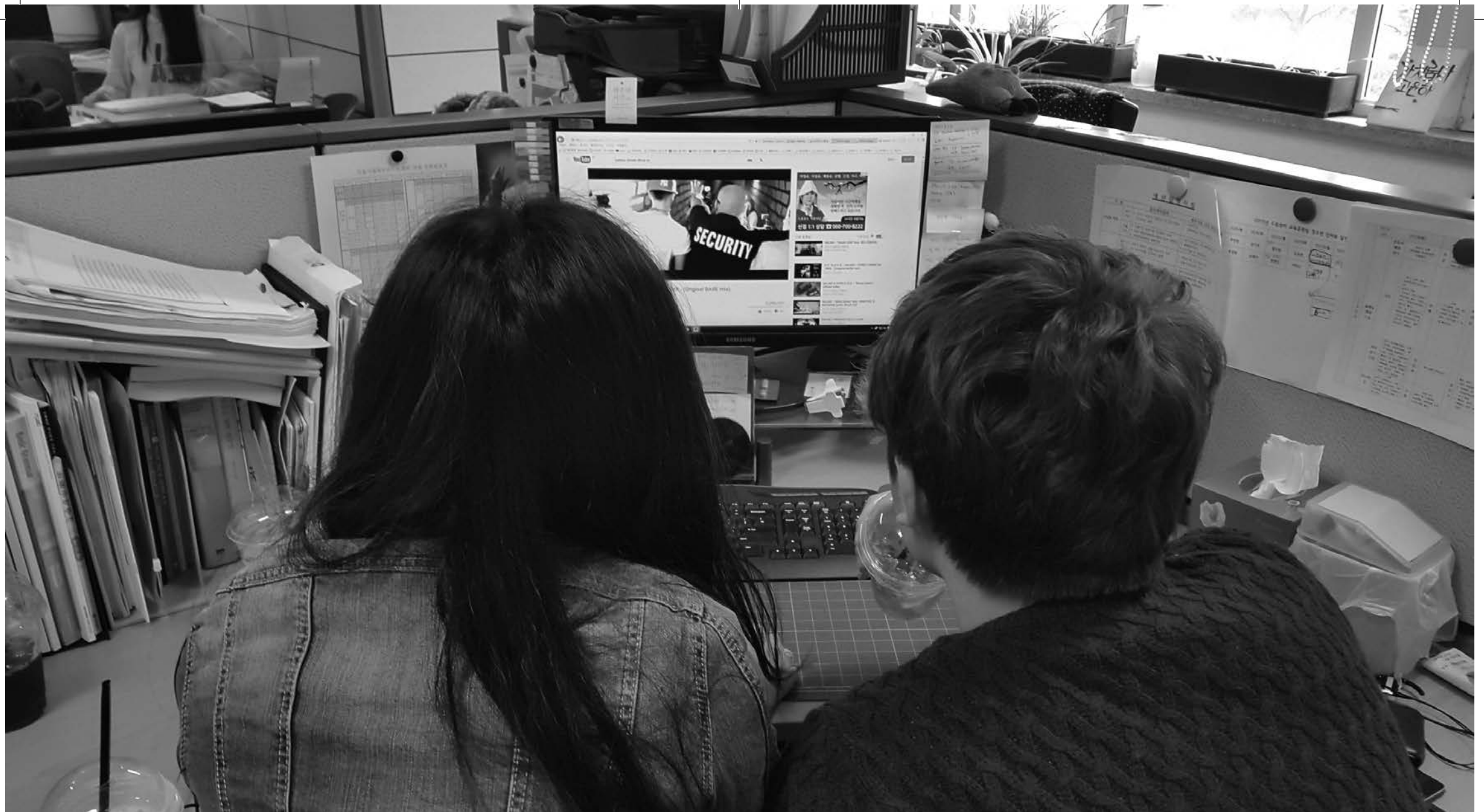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된 사람에게 일정 기간 동안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하는 제도로, 사회에 대한 범죄피해의 배상 및 속죄의 기회와 함께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본인에게도 보람을 느끼게 한다.

3. 수강명령 집행

수강명령은 정신적·심리적 원인이나 잘못된 문제 인식과 행동습관으로 인해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게 될 우려가 큰 마약, 음주운전, 가정폭력, 성폭력 등의 범죄인에 대해 일정한 시간 동안 교육과 치료를 받도록 함으로써 성행을 개선하여 적극적으로 재범을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4. 조사 실시

법원, 검사 등의 요청으로 보호관찰관이 조사 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객관적, 과학적으로 조사하여 구형과 양형 및 범죄인 처우의 기초 자료로 제공하는 제도이다.





반도의 흔한

김영재 (가명, 17세, 위탁형대안학교 재학생)



초등학교 3학년 때 새로 생긴 초등학교로 전학을 가게 되면서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했다. 전학 뒤 영재의 기억은 자기에게 시비 거는 아이들이 짜증나서 만날 싸우고 지낸 것뿐이다. 정말 ‘막 나가’기 시작한 건 6학년 때부터였다. 시도 때도 없이 학교를 결석했고, 간만에 학교에 나가게 되면 수업 시간에도 사물함 위에 누워서 잠을 잤다. 선생님은 웬만해선 영재를 ‘건드리지’ 않았[못했다].

쉬는 시간에는 잠에서 깨어나 ‘놀았다’. ‘우산 던져 교실 유리창 깨기(창 던지기)’, ‘빗자루 던져 칠판 부수기(누가 더 힘 세냐)’ 같은 것들이었다. 표면적으로 아이들이 저지른 일은 ‘학교 기물 파손’이지만 아이들에게는 ‘재미’와 ‘놀이’였다. 영재가 주도했지만 교실에 있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박장대소하며 그 놀이에 동참했다. 선생님께 혼나지는 않았다는 물음에 영재는 말했다.

“돈 물어주면 돼요.”

이런 행동에 그저 돈을 물어내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교사는 어떤 심정이었을까. 그리고 학교의 유리창을 깨고 칠판을 망가뜨렸다는 데서 오는 양심의 가책보다는 그것이 그저 ‘놀이’고 ‘재미’라는 식의 사고는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반도의 흔한 ○○○’ ‘반도의 흔한 중2’ 등의 제목으로 올라온 동영상들을 한참 뒤져보고 나서야, 과격하게 그네를 타다 떨어지고, 마주 앉아 뺨 때리기 가위바위보를 하다 물건을 집어 던지고, 책상 위에 올라가 저질 댄스를 추고, 좁은 방에 모여 목적도 없이 여럿이 레슬링을 하는 등의 것들이 모두 이 아이들의 ‘놀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사실 이제는 고등학생이 된 영재도 자신이 그때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잘 모르겠다.

3년 전 학교 사물함 위에 누워 베개를 베고 잠을 자던 아이는, 이제 대안학교에서 나와 놀지 않고, 옆드리지도 않고, ‘앉아서’ 수업을 듣다가 꾸벅꾸벅 졸다. 나이가 들면서 ‘찰’이라는 것도 들어가는 모양이다. 이제 영재에게는 노는 것보다 졸업장 따는 게 더 중요하다. 그리고 지금 이 학교가 ‘너무 좋다.’ 이유는 별 것 없다. 일반 학교보다 좀 느슨하다는 것이 이유라면 이유다.

영재 같은 아이에게는 어쩌면 비록 꾸벅꾸벅 졸더라도 지금 이 순간 교실에 나와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일지도 모른다.

과연 ‘출석’이 ‘최선’인 이 아이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생각 없이 살았어요

은진 중학교 때 위탁형 대안학교를 갔다고 들었어요.

열재 제가 사고를 좀 많이 쳤어요.

은진 언제부터 사고를 친 것 같아요?

열재 초등학교 5학년 때쯤부터... 애초에 시작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였어요. 반항기랄까? 그래서 만날 사고 치고 다녔어요.

은진 꽤 어렸을 텐데, 기억이 나요?

열재 싸운 것밖에 기억이 안 나요. 점점 더 심해졌다는 거랑.

은진 3학년 때 무슨 변화가 있었나요?

열재 그때 전학을 갔거든요. 학교가 새로 생겨서. 그런데 저 혼자 그 학교로 전학을 갔어요. 그때부터

애들이랑 싸웠어요.

은진 낯설고 외로웠겠네.

열재 외롭다기보다는 아무 생각 없이 (전학) 갔다가 짜증이 났다는 것만 생각나요. 시비 거는 게 짜증난다는 생각만. 초등학교 때는 별로 생각 없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안 나갔어요.

은진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열재 아뇨. 4학년 때는 웬만큼 잘 나가고... 아무 생각 없이 산 건 6학년 때부터 시작됐죠.

은진 아무 생각 없이 산다는 게 어떤 걸 말하는 거지?

열재 막 사고 저지르는 것. 좀 심한 것들. 막 하는 거죠.

은진 중학교가 원래 좀 힘든 시기 아닌가? 누구에게나.

열재 몰라요. 암튼 그때부터 그랬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중학교는 재밌는 시기였어요. 재밌었어요. (웃음)

은진 어떤 재미?

열재 그냥 중학교 때는 애들이랑 막 놀았거든요. 그냥 애들이랑 있으면 재밌었어요. 애들이랑 뭘 하면 재밌어요.

은진 뭘 하는지는 말해줄 수 없고?

열재 네. (웃음)

은진 유급당하지 않을 정도로만 학교 나가고?

열재 그쵸. 중 1 때는 정학을 30일 먹어서 기본적으로 30일은 안 가고... 30일 남아서 30일 중에 5일 인가 3일인가 남기고 학교 계속 나갔죠.

은진 학교 안 나가다가 나가면 힘들지?

열재 자는 거죠. 제 지정 자리가 있었어요. 교실 맨 뒤에 사물함 있잖아요. 좀 넓은 말이에요. 그 위에 그냥 누워서... 제 베개가 따로 있었어요.

은진 선생님들이 안 깨우셨나?

열재 네.

은진 엎드려 자는 애들 말고 누워서 베개 베고 자는 아이는 너밖에 없었을 거잖아.

열재 저보다 더 심한 아이들도 있었어요. 길어서 몇 명 더 잘 수 있었어요. 재밌었어요.

은진 베개 베고 자면 '안 좋은' 일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나?

열재 제가 먼저 마구 사고 치지 않는 이상 절대 선생님들이 저 안 건드리셨어요.

은진 학교에서 본인이 어떤 존재였던 것 같아?

열재 친구들 사이에서는 재밌는 애?! 선생님들 사이에서는 약간 4차원?!

은진 재가 왜 저렇까, 하는?

열재 네. 좀 이해 안 가는 행동을 하니까...

은진 누워서 자는 것 말고 뭐가 그런 행동이었을까?

열재 우산 갖다가 창던지기 하다가 유리창 다 깼어요.

은진 교실에서?

열재 네. 맨 뒤에서 누가 더 센지 빗자루 던져서 칠판 부수기도 하고. 빗자루 뒤에서 던져서 누가 제일 깊게 패이게 하나... 그리고 화이트보드 있잖아요. 그걸 옆으로 밀면 쿵 소리가 나거든요. 보드 끝에 막아둔 것 빼고 끝에서 세게 밀어버리면 칠판이 날라 가거든요. 교실 밖 복도까지.

은진 그런 일이 벌어지면, 예를 들어 유리창이 와장창 깨지면, 어떤 생각이 들어?

열재 아, 깨졌다.

은진 그 뒤에 일어날 일에 대한 걱정은 안 되고?

열재 그냥 돈 물어주라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그냥 넘어가요.

은진 돈을 물어주라고?

열재 네.

은진 그럼 어떻게 하지?

열재 제가 돈이 있었어요.

은진 돈만 내면 그냥 넘어가시든가요?

열재 네. 부모님 오시라 하지도 않고. 뭐, 그런 걸로 부모님 부를 일 없잖아요.

은진 그런데 꽤 큰 돈이 필요하지 않나?

열재 거지 같이 살지 말라 해서 절대 돈 없는 적이 없었어요.

은진 누가?

열재 저희 엄마요.

철이
듣다는
것

은진 중학교 때 대안학교에 위탁된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궁금해요.

열재 중학교 2학년 땐가? 스키캠프를 간 적이 있어요. 가기 바로 전날인가? 제가 한 친구를 때렸어요. 거기다 캠프에 가서 술이랑 담배를 사서 먹다가 다른 학교 애들이랑 시비도 붙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앞방에 가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선생님이 들어왔어요. 그때 뺨때기를 맞았어요. 아, 되게 열 받아가지고...

은진 그래서 대들었나?

열재 그럴 땐 가만히 있어야죠. 그 선생님 너무 강했거든요. 너무 췌어요. 그래서 학교로 돌아오고 학교에서도 계속 맞다가 부모님 오라하셔서 학교 못 다니겠다고 했어요. 그때 대안학교에 가게 된 거예요.

은진 위탁형 대안학교가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

열재 제가 집에서 개인 상담을 했었는데, 그 선생님이 아는 곳이 있어서 ○○○ 대안학교로 갔어요. 거기에는 술 담배가 금지되어 있고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그게 좀... 애들이 스트레스를 기숙사에 들어와서 푸니까... 애들끼리 싸우고 '스파링'하고 그런 걸로 풀었어요. 학교에서 못 하게 하니까 안 걸리게 했어요. 선생님 오시면 자는 척하고 가시면 또 하고, 토너먼트로 하고 그랬어요. 거기는 그것 밖에 놀 게 없었어요. 밖에도 못 나가게 하고... 주말에는 집에 가고.

은진 주말에 놀았겠네?

열재 그때는 정말 한 게 술 먹는 것밖에 없었어요. 담배 피우고 술 먹고... 그게 주말에 나와서 하는 것의 전부였어요. 동네 가면 애들이 '나왔냐?' 하고 나왔다고 하면 '○○로 와라' 해서 바로 술 먹고, 일요일에 (학교에 다시) 들어가기 전에 또 먹고.

은진 중학생인데 술 사 먹기 어렵지 않았어?

열재 다 팔던데.

은진 담배 사기는 더 어렵고.

열재 '민증'이 있었어요. 선배 것.

은진 대안학교 다녀 보니 학교 수업이랑 많이 다르던가?

열재 몰라요. 저 배운 적이 없어요.

은진 거기서도 잤어? 거기는 사물함 없었을 거잖아. (웃음)

열재 네. 책상에서 (옆드리는 시늉하며) 이려고 잤어요.

은진 지금 이 학교에서는?

영재 그냥 가만히 있다가 좋아요.

은진 예전엔 누워서 자다가, 엎드려 자다가, 이제는 앉아서 즐기만 한다는 거잖아. 존다는 건 졸다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고.

영재 그쵸.

은진 엄청 발전했네... 비결이 뭐야? (웃음)

영재 예? 아... 나이 들으면 돼요. 나이 들면 좀 철이 들어요. 형들이 철든 이유를 알겠어요, 이제.

은진 학교가 왜 다니기 힘들었던 것 같아?

영재 그때는 학교보다 애들이랑 노는 걸 중요시했어요. 그런 게 우선인 줄 알았어요.

은진 지금은 아닌가?

영재 지금은, 아니죠.

은진 지금은 뭐가 중요해?

영재 일단, 졸업장이요. 졸업장을 따야 뭔가를 할 수 있으니까. 남자인데 고졸까지는 해야죠.

은진 남자만 그런 건 아니지 않을까?

영재 그런가?

은진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영재 네, 바리스타요.

은진 왜 바리스타를 하고 싶어요?

영재 원래는 바텐더였는데, 그건 제 아이랑 노는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요.

은진 벌써 앞으로 태어날 아이를 생각하는 거야?

영재 좀 그런 게 있었어요. 고비가. 열여섯인가 열일곱쯤에 애를 낳을 뻔한 적이 있어가지고... 아이를 낳을 뻔했어요. 그때, ‘와~ 애 아빠 되네?’ ‘와... 큰일 났다.’ ‘엄마한테 뭐라고 얘기하지?’ 그러면서 계속 여자친구 집에 있었거든요. 자다가 일어나서 걱정하다가 그냥 ‘몰라’ 하고 학교 가서 다시 자다가 검사를 해 봤는데 아니더라고요.

은진 천만 다행이었네.

영재 그때는 ‘아, 다행이다’ 하는 정도였는데, 사실 그 친구랑은 제가 아이를 낳아도 상관이 없었거든요.

은진 그때 아빠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봤구나? 그래서 바텐더의 꿈을 접고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 바리스타가 되기로 한 거야?

영재 네. 바텐더를 하면 저녁에 일을 하잖아요. 제 아이들이 놀러오기보다는 나쁜 길로 빠질 것 같은 거예요. 제 애는 잘 키워야 되잖아요, 솔직히.

은진 영재는 나쁜 길로 빠졌던 것 같아?

영재 그렇다기보다는 방향의 시기가 좀 길었던 것 같아요. 좀 심하기도 했고, 그래서 제 아이는 저처럼은 안 됐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좋은 것만 닮았으면 좋겠는데... 바리스타는 낮에 일하잖아요. 제 아이들이 여친 남친 사귀고 그러면 저희 카페에 와서 커피 마시라고 할 거예요.

은진 아이가 자라서 연애했 때까지 바리스타를 하겠다는 거지? (웃음)

영재 네. 지금 바리스타 배우고 있어요.

은진 그 일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영재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은진 방향을 오래한 이유는 뭐였던 것 같아?

영재 그냥... 모르겠어요. 왜 방향을 했는지 모르겠고... 그냥 형들 따라?

은진 초등학교 때 만난 형들?

영재 네. 그때 형들 따라 그러다보니 그게 좀 길어졌죠.

은진 이 학교 오니까 어때요?

영재 너무 좋아요. 여기가 좋아요.

은진 어떤 점이 좋은 것 같아?

영재 느슨한 거요. 좀 풀어줘요. 거리도 가깝고. 여기도 등교 시간이 빠르긴 한데 보통 학교보다는 늦
잡아요. 그것도 좋고. 일단, 일찍 끝나는 것!

은진 학교 끝나면 뭐해요?

영재 요즘엔 집에 가요. 야간전화 받아야 해서.

은진 야간전화?

영재 보호관찰 중이에요. 10시에서 12시 사이에 전화를 두 번 받아야하는데 피곤하니까 우선 집에 가
서 좀 자요. 10시쯤 일어나서 전화 받고. 그리고 나서 컴퓨터하고 폰하고...

은진 지금은 철이 들은 것 같아?

영재 네! 이제 바리스타 자격증이랑 졸업장 따고 좋은 여자 만날 거예요. 결혼을 빨리 하고 싶어요.







아무도 모른다

박수호(가명, 19세, 꿈에학교 재학생)



학부모들이 학교 체벌보다 학원 체벌에 더 관대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우선 '때려도 좋으니 우리 아이 성적만 올려주세요' 하는 학부모들의 욕망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학교에서는 불법인 체벌이 학원에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 학원법에는 체벌을 따로 규제하는 규정이 없다. 민원이 있을 때만 현장을 단속하고 사후 벌점을 부과하는 식이다.

수호가 학원에서 시험을 못 봤다고 아이들 앞에서 주먹으로 배를 맞고, 발로 채이고, 머리를 박아야 했던 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었을 것이다. 아버지보다 무서운 학원 원장선생님은 하필 아버지 동네 친구이자 옆집 아저씨였고, 친구의 아버지였다.

수호는 지방 중소도시 출신으로 고등학교 2학년 때 서울로 전학(?)을 와서 2년 째 위탁형 대안학교를 다니고 있다. 아이는 일반 고등학교 시스템을 도저히 견딜 수 없었다고 했다.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다. 막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는 성적이 너무 좋았다. 중학교 반배치고사 '전교 2등'이라는 점수 때문에 과도한 기대를 받았던 듯하다. 반배치고사 뒤 처음 본 시험에서 40등으로 떨어진 아이는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노는 친구들과 어울리며 방향을 시작했다고 했다.

왜 우리는 아이들을 좀 내버려두지 못하는 걸까.

전교 2등에서 40등으로 떨어진 아이에게 "너 대체 왜 그래?!" 하기 전에 당황스럽고 낙심한 아이의 마음을 공감해주는 어른이 있었다면?

수호가 초등학교 때 집 앞 태권도 학원에 다니고 싶어할 때 "그래? 네가 해보고 싶다면 한번 배워봐." 하고 선뜻 허락해주었더라면?

수호가 학원에 다니기 싫다고 했을 때 "그래, 좀 쉬었다가 다시 다니고 싶을 때 얘기해." 라고 했더라면?

아이가 열심히 복싱을 배우고 있을 때 다시 억지로 입시학원을 보내지 않았더라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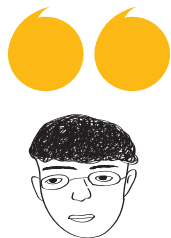
.....

인생 길목 길목에 안타까운 일투성이였지만, 정작 수호는 후회가 없다. 공부만 한 아이들이 하지 못한 진짜 경험에 대한 믿음 같은 것이 수호에게는 있다.

하긴, 이 아이의 이러한 경험이 내일 '무엇'이 될지, 누가, 알까.

우리는, 아무도 모른다.





입시 스트레스

은진 올해 졸업반이죠?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수호 좀 막막해요. 작년에는 그냥 졸업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졸업할 때가 되니까 졸업하기도 싫고, 학교 더 다니고 싶고, 대학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졸업하고 나서 뭐 하지?' 이런 생각 때문에 머리가 복잡하고 짜증나요. 수시로 전문대에 넣었는데, 합격 되면 좋은 거고, 안 되면, 그냥 막막해요.

은진 공부 잘했었다고 들었어요.

수호 머리가 좋았던 게 아니고, 초등학교 점수는 원래 다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처음 중학교 입학할 때 전교 2등으로 들어갔거든요.

은진 반 배치고사 말하는 거죠?

수호 네. 처음에는 중학교 갔으니까 공부해보려고 했죠.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인가부터 입시학원을 다녔거든요. 부모님 아시는 분이 입시학원을 하시는데 그분 아들이랑 제가 친구였어요. 초등학교 2학년 인가 3학년인가 학교 끝나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학원이라는 델 쫓아갔어요. 선생님이 학교 끝나고

친구랑 매일 손잡고 오면 된대요. 그렇게 다니기 시작했죠. 중학교였 2등으로 들어갔다고 하니까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우리 부모님 못지 않게 좋아하시면서 갑자기 뭘 더 가르치시려고...

은진 학원에서 공을 되게 많이 들었나보네.

수호 네. 처음 들어가서 중간고사를 보는데 아침 8시에 가서 밤 11시, 12시에 집에 왔어요. 그렇게 잡혀 있는 게 너무 싫었어요. 중학생이 되어서 처음 시험 볼 때, 나름 긴장이 많이 됐나 봐요. 시험 보기 전날 몸이 아파서 공부를 못했어요. 몸이 아픈 상태로 시험을 쳐서 40등인가를 했거든요. 2등으로 들어왔다가 갑자기 40등을 하니까 담임선생님도 저를 불러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시고, 그때부터 입시 스트레스가 오는 거예요. '지금 공부를 잘해야지 좋은 고등학교를 가서 좋은 대학교를 간다.'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너무 짜증났어요. 중학교 가서 친구들을 사귀었는데 처음에는 잘 안 만났었거든요. 근데 중간고사 망치고 나서 기분도 안 좋고 학원에서도 뭐라 하니까 어울리게 되더라고요. 친구들이 담배를 피워요. 개네들하고 다니다 보니까 담배를 배웠어요. 시험 기간에도 학원에 안 가고 친구들이랑 놀고... 그렇게 성적이 점점 떨어지다가 결국은 제가 그 학원을 나왔거든요. 학원이 굉장히 스파르타 식이었어요. 담배 피운 거 걸렸을 때도 부모님이 아니라 학원에서 맞았어요.

은진 학원 선생님한테?

수호 네. 학원에서 시험 60점 맞았다고 아이들 앞에서 주먹으로 배 맞고 발로 까이고 머리 박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학원을 그만두고 방황하고 가출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죠. 학원 안 가고 방황하다가 제가 아빠한테 그랬어요. 운동 시켜달라고. 너무 운동하고 싶으니까. 아빠 아시는 분이 권투 체육관 하시니까 거기서 다니라 하시더라고요. 다른 동네거든요. 거기까지 제가 다녔어요. 겨울부터 시작했나? 다음 해 가을까지 되게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2학년 넘어가고 봄이 올 때쯤 엄마 아빠가 갑자기 다시 학원을 보냈어요.

은진 저런...

수호 어떻게 된 거냐면 엄마 아빠가 저를 강요해서 보낸 게 아니고 그쪽 원장님과 부원장 선생님이 우리 엄마 아빠를 설득시킨 것 같아요. 이렇게 놔두면 안 된다. 좋은 대학 보내야 되지 않겠냐. 어느

날 아빠가 저한테 학원 다시 다니는 게 어떠냐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루는 체육관 끝나고 내려왔는데 어디서 많이 본 차가 있는 거예요. 갑자기 그 차가 후진을 하더니 창문을 내리는데 학원 원장선생님이더라고요. 저보고 “타!” 이래요.

은진 음...

수호 차에 그 집 아들인 제 친구가 있는 거예요. 원래 그 친구랑 친했는데 중학교를 다른 학교로 가고 제가 방황하면서 거리감이 생겼거든요. 그렇게 세 명에서 밥을 먹으러 갔어요. 되게 불편한 거예요. 부담스러워서 밥만 먹고 있는데 “머리 단정하게 자르고 학원 나와서 공부해라.”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빠보다 그 원장 선생님이 더 무서웠거든요. 밥 먹은 다음 날은 갔죠. 두 번째 날에는 안 갔어요. 그 다음 날 맛있어요. 안 할 거면 나가라고. 그래서 못 하겠다고 하고 나왔어요. 그때부터 공부에서 손 댔어요.** 그렇게 학원 그만두고 친구들이 좋아서 만날 친구들이랑 수업 제끼고 담배 피러 다니고 피시방 다니고 당구 치러 다니고... 그러다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친구들 가출할 때 괜히 의리라면서 따라가 주고, 그래서 가출을 두 번인가 했어요. 개네 때문에.

은진 그러다 고등학교에 입학했겠네?

수호 저희는 고등학교 들어갈 때 시험을 쳐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지역에서 제일 공부 잘한다는 학교는 죽었다 깨어나도 가기가 싫은 거예요. 성적은 되는데, 거기 가면 머리 밀어야 되거든요. 아, 머리 밀기 싫는데 그러면서 두 번째 학교를 갔어요. 두 번째는 좀 ‘프리’해서. 그래도 나름 공부는 잘한다고 하는... 그래서 갔는데, 아우... 처음에는 좀 신났거든요. 제가 들어가서 실장이 됐어요. 실장 하면 부가점수 같은 걸 주잖아요. 그것 때문에 일부러 했는데. 아무튼 고등학교 들어갈 때 마음은 그랬거든요?

은진 잘해보자?

수호 네. 들어가서 나쁜 친구들 안 만나고 공부 열심히 해봐야겠다는. 제가 눈이 안 좋아요. 그래서 안경도 사고 예전처럼 교복도 안 줄이고 단정하게 가방도 메고 그러고 딱 학교를 갔는데, 딱 3일 다녔냐?

은진 3일? 적응하기 어렵던가요?

수호 **처음에 되게 열심히 들으려고 노력했는데 뭐라고 해야 하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들어가면 난이도가 갑자기 확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알아먹겠는데 다른 거는 못 알아먹겠고. 제가 좋아하는 선생님 수업은 되게 열심히 들어서 그나마 점수가 나왔거든요. 근데 영어 국어는 제가 아예 포기한 상태라서 아예 거들어 보지도 않았어요.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 1학년 때, 아자 제긴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점점 더 학교 수업도 듣기가 싫은 거예요. 만날 도망가고 선생님이랑 싸우고...

늘
방향만 한 건
아니다

수호 그런데 사실 중 2 때 좀 정신 차린 일이 있었어요. 수학여행을 가서 다른 지역 애를 때렸는데 개가 병원에 누워서 전치 12주라면서 합의를 해야 한다고 학교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3학년 때 처벌을 받았거든요. 처음에는 다른 학교로 전학을 시키겠다고 결정이 되었는데 아빠가 못 보낸다고, 이 학교에 들어온 이상 이 학교에서 졸업을 시켜야 한다고 사정을 하셨어요. 아빠가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고 저를 한 번만 믿어 보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전학을 안 가고 사회봉사를 가게 됐거든요. 한 10일 동안 산골짜기에 있는 장애인 시설에 가게 됐어요. 거기서 10일 동안 먹고 자면서 봉사활동을 했어요.

은진 열흘 동안 어떤 일을 했어요?

수호 청소도 하고, 밥도 떠먹여주고, 씻겨주고, 똥 닦아주고, 옷 입혀주고... 사실 저는 되게 짜증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가서 나름 열심히 했어요. 꺼려지기보다는 거주자들이 안 되어 보이는 거예요. **밤에 잠잘 때 천정 보면서 나는 진짜 건강하게 태어난 것에 대해 감사해야 하는구나 생각했어요. 공부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기 싫지만 열심히 살아야겠다 생각했죠.** 마치고 돌아왔는데 학교에서 저보고 눈빛부터 많이 바뀐 것 같대요. 선생님들이 저를 보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갑자기 저한테 잘해주

사고... 엄마 아빠한테도 느낀 걸 그대로 말했죠. 그때 엄마 아빠가 공부는 하고 싶을 때 하면 되니까 건강하고 바르게만 살라고, 뚝뚝하게 살라고 그러셨어요. 놀 건 놀되 중학교 2학년 때처럼 사고치는 건 안 하고, 수업 시간에도 도망 안 가고.

은진 그러다 고등학교 가서 공부도 따라가기 어렵고 하루종일 학교에 있어야 하는 게 힘들어서 적응하기 어려웠던 거구나?

수호 네. 도망도 많이 가고... 밖에 있으면 만날 아빠가 잡으러 왔거든요. 하루는 아빠가 “공부 안 하면 뭐할 건데?” 물어보시더라고요. “운동 하면 안 돼?” 그랬더니 선수로 가기엔 너무 늦었다고. 그러면 체대 쪽으로 가보래요. 그래서 야자를 빠지게 됐어요. 6시 끝나고 집에 오면 한 7시 되거든요? 7시부터 세 시간씩 운동을 해라. 애들은 공부를 하니까. 그렇게 약속을 해서 처음에는 했어요. 처음에는 야장에서 당당하게 나가니까 6시까지 수업을 들었어요. 수업 듣고 야 나 집에 간다. 이러면서 정문으로 걸어 나오고.

은진 (웃음) 그 전에는 월담했는데?

수호 네. 월담. 그렇게 당당하게 나오고 매일 운동을 했어요. 집 앞에 큰 공원이 있어요. 집에서 ‘웨이트’를 대충하고 나가서 유산소 운동하고 그랬거든요? 아버지가 예전에 운동을 하셨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운동 계획을 다 짜줬어요. 그런데 갑자기 또 바람이 분 거죠. 어느 날. ‘아, 학교 하루 종일 있다가 운동하다가 자고, 학교 가고, 이게 뭐하는 거지? 내 생활이 없네?’ 이러면서 점점 학교 정규 수업 시간에 도망갔어요. 어떤 날엔 선생님이 와서 아침조회 하고 나가면 나도 그냥 학교 밖을 나가고, 어떨 때는 3교시까지 하고 나오고...

중학생의 사업

은진 그런데 친구들이랑 어울려 놀려면 사실 돈이 필요하잖아. 어떤 친구들은 용돈이 부족하니까 돈

을 빼앗기도 하고 훔치기도 하고 도박 같은 걸 하기도 하던데.

수호 저는 진짜 그런 짓은 안 했어요. 쪽팔려서. 친구들 보면 친한 애들 돈 뺏고 돈 가져오라고 그러거든요? 내가 없으면 없는 대로 살지, 왜 남의 것을 빼앗아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제 용돈은 제가 벌어서 마련했어요. 부모님이 주는 용돈은 한계가 있으니까. 왜냐하면 담배도 사 피워야 되고 차비도 있어야 되고.

은진 그럼 돈은 일을 해서 마련했어?

수호 아니요. 아르바이트는 고 1 때부터 했고요, 그 전에는 제가 직접 다 했어요.

은진 직접 다 하다니?

수호 누구 밑에서 일한 게 아니고 제가 직접 돈을 벌었어요. 폰 팔이 같은 것도 해보고.

은진 폰 팔이?

수호 네. 폰을 제가 싸게 매입을 해서 팔거나 중간에서 업자한테 넘겨주고 그러는 거요. 집에서 안 쓰는 폰들 중에서 매물 관촬을 것들을 싸게 빼 와가지고 업자한테 넘기면 개네가 저한테 돈을 주거든요. 진짜 좋은 매물이 들어 왔을 때는 제가 직접 팔고요. 업자한테 넘기면 저는 돈을 적게 받거든요. 그걸로 해서 제가 자본을 좀 모았어요.

은진 어떻게 그런 식으로 돈을 모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야?

수호 알바 하면 월급 탈 때까지 친구들을 못 보잖아요. 집에서 놀면서 할 수 있는 게 없나 생각하다가, 도매 사이트에서 제가 직접 물건을 싸게 떼서 팔아볼까 생각을 하게 됐어요. 뭔가 획기적인 게 없나 하다가 어느 날 거울을 딱 봤는데 여드름이 너무 난 거예요. 그러다가 여드름에 관련된 거를 해보면 좋겠다 싶었죠. 제 인맥이라고 해봤자 어른이 아니고 다 친구들이나 선배나 동생들이니까요. 도매처에도 전화해보고 지인한테도 물어보고 해서 제일 관촬은 상품을 떼 왔어요. 한방에 ‘올인’을 했어

요. 제 자본을 다 끌어 모아서 만 개를 샀어요. 그리고 3개월 만에 만 개를 다 팔았어요.

은진 만 개? 대단한데...?

수호 중고나라 이런 데도 올려놓고 지인들한테도 홍보를 다 했어요. 그러니까 연락이 오는 거예요. 이게 좋은 게 친구들하고 놀면서도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예요. 놀 거 다 놀고 밤에 집에 가요. 집에 가서 그 물건을 예쁘게 포장을 해요. 그걸 한 번에 옮길 수 있게 쇼핑백에 담아서 양손에 들고 집에서 나가요. 나가서 저희 집 뒤에 편의점이 있거든요. 거기서 편의점 택배로 다 보내요. 다 보내주고 운송장 찍어서 보내주고, '다음에 또 이용해주세요.' 그러면 다 쓰고 효과가 있는 사람은 연락이 계속 와요. 그렇게 다 팔았어요. 제가 물건을 올릴 당시에는 그 제품을 파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다른 사람들도 팔더라고요. 처음에는 7~8천 원에 올려놨는데 갑자기 그 사람들이 5천 원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사요. 그래서 제가 이를 앙 물고 가격을 내렸죠. 3천 원으로. 그래서 천 개 2천 개까지는 본 가격으로 팔다가 나머지는 다 3천원에 팔았어요. 그래도 뽕을 만큼은 뽕았어요. 그래서 다른 아이템으로 옮겨야겠다 그랬는데 돈을 너무 많이 써버려서 자본금이 없는 거예요. 아이템도 딱 안 떠오르고... 그래서 그냥 접었어요.

은진 그런 생각을 중학교 나이 때 하기가 어렵잖아, 보통은.

수호 그러게요. 제가 좀 잔꾀를 부리다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놀고는 싶고 돈은 벌어야 되는데... 그때 제가 좀 돈을 잘 모아 놓고 획기적인 것들 하나 둘씩 해서 뽕뽕 터트렸으면 저 지금 여기 없었을 걸요? 좀 아쉬워요. 그때 노는 것보다 그런 쪽으로 봤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싶어요.

은진 지금도 늦었다고 하기는 어려운 나이잖아요?

수호 요즘에는 아이템이 없어요. 요즘에 나오는 '셀카봉' 있죠? 저 중학교 때 셀카봉 같은 것도 생각한 적 있어요. 셀카를 찍는데 친구들이 팔이 짧아 가지고 만날 제가 찍어줬거든요? 뭔가 기다란 걸로 바로 찍을 수 있는 건 없나 하면서 아이템을 검색해봤는데 그때는 없더라고요. 알게 모르게 생활 속에서 딱 느낌이 와요. 커가면서 현실 물정을 너무 알아서 그런지 요즘에는 안 될 것 같은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어요.

아쉬운

것들

은진 지금은 후회 없어?

수호 네. 엄마 아빠가 그랬거든요? 공부할 때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할 거라고. 그런데 별로 후회는 안돼요. 공부한 아이들은 지식을 더 갖게 되었겠지만 저는 직접 몸으로 부딪히고 경험해서 나름 깨달은 게 몇 개 있거든요. 뭐라 해야 되지? 공부만 하는 애들은 모르는 거?

은진 지금 서울서는 혼자 살고 있어요?

수호 아버지가 올라오셨어요. 제가 전정기관에 염증이 생겨서 쓰러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아버지가 올라오셨어요.

은진 오랜만에 아버지랑 같이 사니까 좋아요?

수호 작년부터 같이 살았는데 지금은 똑같아요. 사이좋고, 아버지가 원래 되게 엄격했는데 제가 사춘기 겪으면서 아버지도 같이 변했어요. 그래서 아빠한테 되게 고마워요.

은진 다시 고향으로 내려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수호 제 발로 왔는데 할 거 없다고 다시 내려가서 부모님 집에 들어가서 부모님... 하... 그만 속 썩이고 싶어요. 그만 속상하게 하고 싶어요. 근데 대학교 가고 싶어요. 대학 생활을 해보고 싶어요. 전문 대라도 가서 대학 생활 좀 해보다가 군대 가려고요. 군대 갔다 오면 생각이 좀 더 많아지고 그런 게 있대요. 일단은 가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가려고요. 원래 경호원 쪽이나 체대를 다시 해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사고가 많이 나서 후유증도 있고 해서.

은진 사고? 오토바이?

수호 네. 사고가 많이 나서 어깨도 오른쪽이 부실하고 손도 지금 부실하고. 봉합수술 했거든요. 인대랑 힘줄 끊어져 가지고. 원래 학교 끝나고 할 거 없으면 운동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병원에서 이쪽에 다시 충격이 가해지거나 하면 손을 못 쓸 거래요.

은진 아쉬운 점들이 참 많네... 초등학교 때 질리게 공부 안 했으면 어땠을까, 중학교 때도 좀 실컷 운동을 해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수호 그러게요. 초등학교 때부터 태권도장 같은 데 정말 다니고 싶어서 많이 즐겼는데 그때는 절대 안 된대요. 그러다가 중학교 때 복싱 배울 때도 좀 더 할 수 있었는데 학원에 끌려가면서 안 됐지, 중학교 때 양궁부 몰래 들어갔다가 시험 전날 아버지한테 사인해 달라고 했다가 맞고 못하게 된 적도 있고... 팔다리가 길고 키가 크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쏘기 쉽고. 아씨... 혹시 몰라요. 그때 양궁 계속 했으면...

은진 어디 올림픽 같은 데 나와 있을 수도 있고.

수호 태릉선수촌에 있을 수도 있고. (웃음)

은진 대학은 어느 과에 지원했어요?

수호 사회복지요. 이상하게 적성검사하면 사회복지지는 반드시 나왔어요. 작년까지는 그냥 졸업장이라도 따야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암튼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은진 혹시 어른 되어서 본인하고 비슷한 아이들 만나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수호 네.

은진 모범생으로 평탄하게 살았던 사람보다 10대들하고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을 거예요. 중학교 2학년 때 사회봉사 했던 경험을 돌이켜보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애.
암튼 어려운 이야기해줘서 고마워요.



개
꿀
인
생

3장

힘을 피하는 리머

싱글레어에서
데미안으로
가는 길 김은영

혼자 있는
시간의 힘 노태서



싱글레어에서 데미안으로 가는 길

김은영 (가명, 18세, 전 꿈에학교 재학생)



“주사기로 지식을 주입하는 것 같았어요.”
“학생들이 유리컵 안에 갇혀 있는
벼룩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은영은 학교라는 곳에 대해 느낀 것들을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 이야기했다.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을 읽으며
주인공 ‘에밀 싱글레어’가 자신처럼 느껴졌다는
은영은 고등학교 2학년이 된 다음 날
담임을 찾아가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이야기했다. 원래는 학교를 그만두고
비인가 대안학교를 가볼까 했지만
위탁형 대안학교라는 곳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마음이 흔들렸다.

전국에 200여 개가 있는 위탁형
대안학교는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학생들을 학적은 원래 학교에 둔 채
위탁을 받아 교육한다. 학교 졸업장을
받기 위한 마지막 보루인 셈이다.
대부분이 학교가 맞지 않아 그만둘
결심을 하거나 학교가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손을 든 친구들이다.
굳이 말하자면 은영은 전자에 해당하는
경우다. 대한민국의 학교가 ‘지금
이 순간’을 ‘어떤’ 미래에 저당 잡히는
수용소임을, ‘나는 누구인가’란 질문을
하면 안 되는 공간임을 은영은
일찍 눈치 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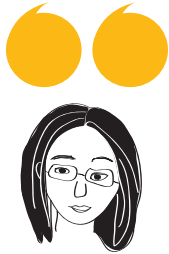
하지만 위탁형 대안학교에 은영과 같은
아이들이 거의 없다는 데서 은영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듯했다. 뚜벅뚜벅
학교를 제발로 걸어 나오긴 했지만 ‘학교에 나
와주는 것만으로도 대견한’ 그런 아이들 틈바
구니에서 은영은 역설적이게도 새롭게 부적
응아가 되어가고 있는 같기도 했다.

위탁형 대안학교가 지닌 태생적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 한계 탓인지 모르겠지만,
학교폭력이라는 이름으로 학교의 모순을
온몸으로 드러내거나 눈에 띄게 외상을
입는 아이들만을 위해 최소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어졌다.
하지만 학교 안에는 혼자 내상을 차곡차곡 쌓
아가는 아이들도 있고, 은영처럼
남보다 조금 더 예민한 인문학적 감수성으로
견디기 어려워하는 아이들 또한 있을
것이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 제도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걸까.

내 속에서 솟아나오려는 것
바로 그것을 나는 살아보려고 했다. 왜
그것이 그토록 어려웠을까.

— 헤르만헤세 《데미안》 중





학 교 를 나 온 이 유

은진 얼마 전 <꿈에학교>에서 다른 위탁형 대안학교로 옮겼다고 들었어요.

은영 네. 일단 거리도 너무 멀었고 성향이 저랑 안 맞다고 느껴져서... 선생님들하고 가족 같은 분위기 너무 좋은데 너무 가족 같다 못해서 너무...

은진 긴장감이 없다는 뜻인가요?

은영 그것도 그렇고, 적당한 선을 지켜주지 못하는 것 같아서요. 그걸로 상처받기도 하고... 그래도 조금은 규율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옮기게 됐어요.

은진 대안학교 다닌 지는 얼마나 됐어요?

은영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다녔어요. **학교가 힘들다기보다는 답답했어요. 그냥, 뭐, 다니려면 다닐 수 있었는데, 근데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렇게 교육하는 게 저랑 안 맞았어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효율적일 수는 있어도 내 인생을 통틀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효율적이지 못한 교육이라고 생각했어요.**

은진 그때 이런 위탁형 대안학교가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은영 아니요. 원래는 자퇴를 생각했어요. 그런데 저는 자퇴를 하기에는 소속감이 중요한 사람이라서 울타리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자퇴를 하고 그냥 도시형 대안학교를 갈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졸업장 등의 문제도 있고... 그때는 마음이 조금 흔들렸었나 봐요. 마침 이런 학교를 알게 돼서 여기를 다니게 됐죠.

은진 위탁형 대안학교의 다른 친구들에 비해 굉장히 자기주도적인 선택을 한 셈이네요.

은영 자기주도적으로 살고 싶어서 학교를 나왔어요.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꿈이 확고하게 있었는데,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이과와 문과를 생각하게 되면서 꿈은 정말 꿈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꿈이 이과 쪽이었는데 제가 수학이 안 된다는 걸 알게 되고... 사실 중학교 때까지는 울면서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도저히 아니다 싶어서 그 꿈을 포기하고 문과 쪽으로 돌리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좀 막막한 거예요. 그때 방황하면서부터 뭔가 애초에 내가 받고 있던 교육이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걸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만날 떠주는 밥만 먹으며 공부하라면 하고 말라면 말았으니까... 중학교 3학년 말부터 고 1 때쯤부터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은진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어도 그냥 남들 사는 대로 사는 친구들과 달리 '결단'을 내리는 순간이 있었던 것인데.

은영 고 2 째 올라가면서부터 새로운 친구를 사귀려고 보니, 분위기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음... 너무 애들이 공부에만 혈안이 되어 있달까. 고등학교 2학년 때 반 배정 받고 하루 지나고 자퇴하겠다고 했어요. 일단 2학년 때 담임선생님은 저를 하루밖에 못 보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리거나 할 입장은 아니셨어요. 오히려 **1학년 때 담임선생님께서 '그게 아니다. 네가 대학만 가면 네가 원하는 자기주도적 삶을 살 수도 있다'고 계속 설득을 해서 1년을 버틴 거예요.**

은진 그러면 1학년부터 계속 그만두고 싶다고 얘기를 한 건가?

은영 초반부터는 아니고 정말 그만두고 싶다 생각한 거는 말부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반이 유독 학업에 열중하는 반이었고, 선생님도 욕심이 있으셔서 1등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게 있었어요. 고등학교에 다시 입학할 때는 성격도 좀 고쳐보고 잘해보자 했는데, 아무리 해도 공부는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고... 뭐, 따라가기 힘들다기보다는 할 만큼은 했어요. 근데 제가 만족스러운 결과는 안 나왔죠. 제가 또 욕심이 있는 스타일이라서 못하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은진 **중고등학교 시기에는 또래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기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쉽게 학교를 그만두지 못하기도 하고.**

은영 일부는 동의하고 일부분은 그닥... 엄마가 친구 같아요. 엄마가 나이가 어리다는 게 아니라 생각이 어려서 저랑 잘 맞아요. 성격은 정반대인데. 그리고 고등학교 친구들이랑도 아직 연락해요. 친구들은 처음에 제가 학교를 그만둔다고 했을 때 “미쳤냐?!” “네가 학교를 왜 그만두냐!” 난리를 쳤어요. “너 지금 공부 못하는 것 같지? 너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꼭 1등을 해야 하는 건 줄 알아? 너 정도면 정말 괜찮아!” 이러면서 계속 말리고 그랬는데...

은진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을 이해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내가 왜 학교를 그만두는지에 대해서 잘 이해 못하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은영 그렇죠. 그런 친구가 더 많겠죠. “애 미쳤나봐. 우리나라에서 꼴값을 떤다, 꼴값을 떨어!” 하거나 “먹고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뭘 혼자... 뜯금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있겠죠. 그리고 일부분은 저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안 된다는 게 많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걸 너무 듣고 자라서 그런지 만날 죽고 싶다, 공부하기 싫다, 학교 때려치우고 싶다, 그러면서도 진짜 그렇게는 못해요. 생각만 그렇게 하는 거지. 물론 학교를 기쁘게 다니는 친구들도 있지만요.

은진 **그만두고 나서 어떻게 살아야겠다는 생각도 했을 것 같은데...**

은영 **일단 여유를 가지고 싶었어요. 여유를 가지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잘하는지, 정말로 나중에는 뭘 하면서 먹고살고 싶은지를 진지하게 고민해보자. 그리고 저는 주입식 교육이 싫었거든요. 마치 머리에 주사기로 약물을 주입하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찾아보고, 제가 탐구**

하고, 제가 원해서 하는 공부가 하고 싶었어요. 대학을 위한 공부, 취업을 위한 공부, 이런 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첫째는 여유를 갖고,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찾아서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남들보다 1년, 많으면 2년 정도 늦을 수 있겠지만요. 대학에서도 여러 가지 활동을 해보면서 공부를 하고 싶고, 그렇게 대학을 졸업하면, 대학 틈틈이 알바도 하고 돈도 모아서 대학을 졸업하고 여행을 가야겠다, 세계일주...

은진 **졸업하기 전에 가야지. (웃음)**

은영 저는 그런 게 있었었어요. 20대 때는 직장을 안 갖고 싶다.

은진 **오... 왜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은영 엄마 아빠들이 돈 없다고 만날 그러시잖아요. 그리고 먹고살기 힘들다. 그러면 다른 친구들은 그걸 보고 ‘좋은 데 취직해서 정말 돈에 얽매이지 않는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 게 아니라 ‘애초에 나는 그런 마인드를 갖지 말아야지’ 생각했어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돈이 많아도 부족하다고 느낄 것 같았거든요. 그냥 마음을 비우고,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맞춰서 사는 마인드를 갖고 싶었어요. 그리고 소속감이 구속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회사는 엄격하잖아요. 그렇게 빨리 그런 데 들어가고 싶지도 않았고, 그래서 20대 때는 여행도 다니고 글도 쓰고 사람도 만나고 그러면서 다니다가 서른 살 정도 돼서 구직을 해야지. 가능하다기만 하다면 저는 일반적인 회사보다는 자유로운 곳에서 돈을 벌고 싶어요.

은진 **그런데 막상 학교를 그만두고 나면, 생각처럼 살아지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은영 그래서 때로는 제가 바보 같다고 생각을 하기도 해요. **저는 학생들 모두가 유리컵 안에 갇혀 있는 벼룩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벼룩은 되게 높이 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유리컵에 가둬놓으면 계속 머리를 부딪히다가 어느 순간에는 컵 높이만큼만 뛰게 된대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컵을 벗겨 내도 계속 그만큼만 뛰게 된다는 거죠.

은진 음...

은열 저는 그 유리컵을 알았고, 싫었고, 그래서 벗어나고 싶었던 건데, 힘들 때마다 '내가 유리컵을 깰 수 없는 인간인데 왜 나는 이런 선택을 해서 스스로를 더 힘들게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친구들이 유리컵의 존재를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 안에서라도 최대한 잘 살려고 노력하는 중인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깨고 나가지도 못하고 안에서 만족하지도 못하고... 요새 이게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다 시 다 킨 현 실

은진 보통날의 하루 일과가 궁금해요.

은열 일단 학교 갔다 오면 보통 5시가 넘거든요. 저녁 먹고 영어 공부를 해요. 영어 책 읽고 회화도 하고... 그냥 책도 읽고, 그리고 외부활동하는 것도 몇 개 있어요.

은진 어떤 활동이요?

은열 '꿈다락 토요학교' 같은 거요. 그런 건 웬만하면 하려고 하거든요. 지금은 설치미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세대재단'에서 하는 '유스보이스'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거기 대안학교 나온 오빠가 있는데 위탁형은 아니거든요. 그 오빠를 보면서 아, 나도 그냥 자퇴를 하고 그냥 도시형 대안학교를 갈 걸,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어요.

은진 대학을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해요?

은열 네. 어차피 대학이라고 해도 우리나라 대학이니까, 고등학교 때보다 조금 자유가 더 주어질 뿐이

지 별로 다르지 않을 것 같아서 좀 걱정되기도 하지만. 일단 제가 안 해본 건 다 시도해보고 싶어요.

은진 대안학교마다 커리큘럼을 다르게 갖고 있던데, 두 학교를 다녀보니 어떤가요? 위탁형 대안학교 커리큘럼에 대해서 본인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요. 일반 학교의 수업 시간과 다르기도 하고.

은열 두 대안학교를 비교한다면,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 규율이 조금 더 잡혀 있달까. 수업이 조금 더 가능하긴 해요. 대안학교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 문제아들이 다니는 학교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생각을 가지는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그게 안타까워요. 부적응자들의 집합소랄까? 대안학교를 그 정도의 공간이나 집단으로 만들어버린 게 안타까워요.

은진 아마도 대안학교라는 단어가 너무 광범위하게 쓰이는 탓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학생들한테는 그게 쉽과 전환이 되기도 하니까... 오히려 은영은 본인에게 맞는 대안학교를 찾기 힘든 게 아닐까. 특히 위탁형 대안학교에서.

은열 몸소 느껴보고 학교를 옮겨보기까지 하고 나니까 이제는 더 이상 스스로를 속일 수도 없고 빼도 박도 못하게 너무 알아버려서... 아, 그래서... 그냥 속상하기도 한데, 좋은 점이라고 하면 현실을 딱 알았으니 제가 가야 될 방향도 알고 결론도 딱 나온 거죠. 긍정적인 터닝포인트를 기대했거든요. 제 인생에서. 그런데 잘 모르겠어요. 어우... 또 속이 상한다.

은진 어떤 경험든지 자기 세계와 다른 경험을 하는 건 언젠가는 자산이 된다고 생각해.

은열 최대한 그렇게 생각하려고 해요. 긍정적으로. 그런데 그러기에는 제가 살짝 겁도 많고... 그걸 바꾸려고 나온 것도 있는데, 겁도 많고 결정을 혼자 잘 못해요.

은진 그런데 대학을 가보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 어쨌든 입시를 해야 하잖아.

은열 그게 현실이죠. 혼란스러운 점이 여기에서 또 발생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시험 본 게 그대로 생활기록부로 가요. 그러면 더 유리할 것 같죠? 그런데 그건 아니예요. 왜냐하면 생활기록

부에 '타기관. 위탁형 대안학교'라는 명칭이 쓰여요. 어느 정도 이름 있는 대학들은 그런 걸 취급해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괜찮은 데를 가려고 하면 저는 어쩔 수 없이 정시를 준비를 해야 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또 웃긴 게 그렇게 되면 본교 애들이랑 상황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정시를 준비를 해서 똑같이 가야 되니까. 오히려 본교에 있는 애들보다 입시 면에서는 더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은진 그렇겠네... 정보에서 아무래도 밀릴 테니까.

은영 아, 무슨 대학 하나를 가는데... 말도 안 돼요. 힘들어요. 솔직히.

책 읽는 소녀

은진 대학 가서 공부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은영 저는 일단 외국어 배우는 걸 좋아해요. 어문 계열로 생각하고 있고, 아니면 신문방송이나 문예창작도... 아직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고.

은진 영어 잘해요?

은영 잘하지는 않아요. 그냥 좋아해요. 요새는 입시나 주입식 교육으로 영어를 많이 배우다보니까 잘하는 애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그냥... 재밌어요.

은진 그래서 지금은 영어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은영 공부라고 하기도 어려워요. 그냥 책 읽어요.

은진 영어로 된 책? 원서?

은영 네. 그런 게 재밌어요. 지금 《기억전달자》라는 책을 거의 다 읽어서 새로운 책을 찾아야 되는데 무슨 책을 선택할지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영어 단어도 단어장 놓고 하면 잘 안 외워져요. 책을 읽으면서 문맥으로 유추도 해보고 머릿속에서 상상해보면 단어가 훨씬 더 잘 떠오르곤 해요.

은진 언제부터 그렇게 남들이 시키는 것보다는 스스로 하는 걸 좋아했었어요?

은영 어렸을 때는 남들이 시키는 대로 했고 그걸 완벽하게 해내야 했죠. 뭘 해도 깔끔하게, 똑 떨어지게 해내야 되는 성격이었어요. 그랬는데, 아, 그냥... 어느 순간 회의를 느꼈을까? 부질없어 보였어요. 솔직히 그걸 완벽하게 해냈던 이유도 '나 잘 봐주세요!' 하는 외침이었던 것 같아요. '저 괜찮은 사람이에요.' '저 이렇게 잘할 수 있어요.' 하고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던 거지, 내 자신이 진정으로 뭘 원하고 있는지는 생각을 안 해봤던 것 같아요.

은진 지금은 어때요?

은영 좋아하는 건 좀 알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방식의 삶을 살고 싶은지도 알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어떤 성격을 가진 사람인지도 알 것 같고... 그런데 제가 뭘 잘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평생 재능을 찾다가 못 찾으면 어떡하지?' '아니, 못 찾는 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없었던 거였으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도 해요.

은진 오늘 집에 가면 뭐하나요?

은영 영어 단어를 찾아보려고요. 책을 읽으면서 바로바로 단어를 찾지 않고 종이에 적어놔요. 그래서 한 번 쭉 읽고 단어를 찾아보면 뭔가 '매칭'이 되죠. 그리고 외부활동에서 하는 과제가... 이번 주 수요일에 페이스북에 올려야 하거든요. 그걸 팀원들끼리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은진 어떤 책 좋아해요? 소설?

은영 굳이 안 가려요. 읽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은진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기억에 남는 책은?

은영 사실 최근에 읽었던 책은 별로 재미있지는 않았고요... 좋아하는 책은 있어요. 《데미안》. 고 1 때 읽었거든요. 고 1 말에. 그때 한창 힘들고 그랬는데 주인공 에밀 싱클레어가 저인 것 같았어요. 에밀 싱클레어를 도와주는 사람이 데미안이잖아요. 그런데 결국 데미안이라는 인물이 실존 인물이 아니라 의지하려고 만들어낸 인물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거든요. 나는 언제쯤 내 안에서 데미안이라는 인물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 생각하곤 해요.



은 영 의 외 부 활 동

다양한 기관에서 제공하는 학교 밖청소년 프로그램들을 통해 관심이 비슷한 또래들을 만나고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것 또한 좋은 배움의 과정이 될 수 있다. 은영은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들을 찾아내 자신의 관심사인 인문학, 문화예술, 미디어 등의 학습을 지속하고 있다.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 등과 함께하는 학교 밖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다. 2015년 현재 전국 각 지역에서 700여 개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미술관, 박물관, 국공립기관, 도서관 등과 연계한 미술, 음악, 역사, 연극, 영화, 건축, 문학, 미디어, 뮤지컬 프로그램 및 주말문화여행, 청소년 문화예술 진로탐색 등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전국적으로 진행된다. 홈페이지(www.toyo.or.kr)를 통해 자신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검색해서 신청해볼 수 있다.

유스보이스 Youth Voice

다음세대재단과 다음커뮤니케이션의 ‘청소년과 미디어’ 사업이다. 청소년들이 미디어의 현명한 소비자 및 생산자가 될 수 있도록 청소년들이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미디어로 표현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홈페이지(www.youthvoice.or.kr)로 들어가면 다양한 청소년 작품들과 정보들을 열람할 수 있다.

- 유스보이스 Lab(청소년 미디어 창작 공간) : 청소년들의 미디어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오프라인 공간. 청소년 휴식 공간, 회의공간, 프로젝트 운영 공간, 미디어 작업 공간으로 운영.
- 운영 시간 : 화~금(오후 1시~저녁 9시), 토(오전 11시~저녁 7시)
- 위치 : 서울 용산구 한남동 683-133 2층 (070-8263-0636)
- 미디어 컨퍼런스(미디어 네트워크의 장) : 매년 여름방학 ‘청소년과 미디어’를 주제로 열리는 컨퍼런스. 미디어 워크샵, 미디어 창작물 공유, 주제 토론 및 발표, 네트워크 파티
- 프렌토(또래 멘토단) : 매년 2, 8월에 모집을 통해 선발





혼자 있는 시간의 힘

노태서(17세, 이룸학교 재학생)



태서는 조금 특별한 이력을 가진 친구다. 한국에서 초등학교 5학년을 마치고 부모님을 따라 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2년 여를 살았다. 아버지가 당시를 기록해 놓은 블로그에는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다.

저희는 사물놀이 하는 가족입니다. 저는 국악인으로 활동하다가 가족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 3년간의 쉼을 작성하고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으로 갔었습니다. 그곳에서 2년여 세월을 보내고 2013년 1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온 가족이 사물놀이로 거리공연을 하며 모로코와 유럽 일대를 여행했었습니다.

[출처] 이너심 & 태동사물놀이 <http://blog.naver.com/kartgimu>

가족들과 함께 남사당패처럼 유럽 여러 나라를 돌며 거리 공연을 마치고 귀국한 태서는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 내 비인가 도시형대안학교인 <이룸학교>에 다니고 있다. 목요일에는 피아노를 배우러 가야하기 때문에 학교를 나오지 못하지만 학교와 집에서 틈틈이 기타 연습을 한다. 물론 지금도 아버지, 형,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단체 분들과 함께 종종 무대나 거리에서 공연을 하며 지낸다. 어떨 땐 상모를 돌리며 판굿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물놀이 한다. 요즘은 카혼을 연주하며 핸드팬을 연주하는 형과 호흡을 맞추는 일이 잦다. 이미 자신이 설 수 있는 무대와 음악 동료들이 있는 이 10대의 삶은 아마추어와 프로 연주자의 중간 어디쯤 서 있는 듯하다. 자꾸만 학교에서 만나는 또래들을 어른들과 비교하게 되는 것도 주변에 어른 동료들이 훨씬 많기 때문이다.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무엇을 할지도 막막한 대부분의 10대들에 비하면 남들보다 일찍이 할 수 있는 것을 갖춘 태서의 삶은 충분히 부러울만한 것이다. 하지만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고민이 깊다. 그래서 책을 읽는다. 요즘 <혼자 있는 시간의 힘>이란 책을 읽고 난 뒤 아이들과 어울리기보다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려고도 노력한다.

앞으로의 계획을 물었더니 태서가 수첩을 뒤적뒤적한다.

'대안학교 계속 다닐까 말까 고민해보기' '적당히 낮잠 자기' '나무 심어보기' 같은 것들이 쓰여 있다. "낮잠이 필요해?" 하고 물으니 태서가 반달눈으로 웃으며 말한다.

"시간을 빨리 안 가게 하려면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태서의 대답을 들으며 입시와 학업에 쫓기는 시간을 하루하루 견디는 아이들을 떠올려본다. 시간을 '붙잡으려는' 아이와 시간을 '견디는' 아이의 시절은 얼마나 다른 것일까.

어떤 이들에게 그것은 '선택'의 문제일지도 모르겠다.





남아공에서 놀다

은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살았다고 들었어요.

텍서 네. 5학년까지 서울에서 학교 다니고 남아공으로 갔어요. 부모님들도 쉴 겸해서... 2년 2개월 정도 살았어요. 남아공 학교 저희 담임선생님이 한국에서 원어민교사 하다 돌아오신 분이어서 한국말을 꽤 잘하셨어요. 대화가 될 정도로요.

은진 남아공에서 일반 학교를 다닌 건가요?

텍서 케이프타운은 휴양도시라 백인들이 많이 살아요. 그 지역에 언어가 11개가 있는데 저는 영어랑 아프리카칸스어¹⁾쓰는 학교에 다녔어요.

은진 오, 그럼 그때 아프리카칸스어도 배웠겠네요?

텍서 (웃음) 엄청 조금 배웠는데, 기억이 잘 안 나요.

1) 1806년 영국인이 점령하기 전 아프리카 남부에 정착한 네덜란드·독일·프랑스의 식민지 개척자 후손들이 17세기의 네덜란드어를 바탕으로 만들었다. 1925년부터 이 언어는 영어와 함께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공용어로 사용되었다.

은진 한국 학교와 다른 점이 많던가요?

텍서 거긴 초등학교가 7학년까지 있고, 중·고등학교가 8학년부터 12학년까지 5년이에요. 우리 나라 초등학교처럼 담임선생님이 많은 과목을 가르치지 않고 다른 수업을 들으려면 학생들이 움직여야 했어요. 그리고, 운동장이, 진짜 잔디로 되어 있었고, 그리고... 학교 안에 매점이 있어서 불량식품 엄청 먹었어요. (웃음) 엄청 달고 엄청 짜고 그런 것... 그리고 여름에는 맨발로 많이 다녔어요.

은진 한국에서는 맨발로 걷는 문화가 거의 없으니, 정말 새로웠겠다.

텍서 맨발로 많이 다니니까 발바닥에 굳은살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점은 학교가 우리 나라처럼 높은 층이 없고 학년마다 따로 건물들이 있었고 학년마다 노는 구역도 달랐어요. 그래서 학년 올라가면 노는 장소도 달라지곤 했어요.

은진 적응하는 게 힘들지는 않았어요? 언어 문제도 있었을 것이고...

텍서 5학년을 10월에 마치고 갔는데 마침 남아공 학교에서도 다음 학기까지 시간이 있었어요. 다음 해 새 학기가 시작하기 전까지 학교에서 제가 적응할 수 있도록 2개월 정도 영어 가르쳐주는 프로그램을 해줬어요. 그때 학교 다니는 것처럼 나가서 학교도 구경하고 적응 기간을 가진 것 같아요.

은진 그때는 아무래도 언어가 빨리 늘었겠지?

텍서 네. 저 진짜 영어 몰랐었는데 가서 어쩌다보니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반에 한국 애들이 3명 있었거든요. 처음 갔을 때 애들이 통번역 같은 걸 도와주고, 다른 남아공 아이들도 착해서 다들 잘 도와줬어요.

은진 학교 가지 않는 시간에는 뭘 하며 지냈어요?

텍서 그때 아빠한테 사물놀이도 배우고, 계속 놀러다녔어요. 악기 공부하고, 놀러다니고, 시험 공부도 하다가... 네, 진짜 많이 놀았어요. (웃음) 인터넷이 없으니까...

은진 인터넷이 아예 없었어요?

택서 인터넷을 설치해달라고 했는데 3개월 동안 안 오는 거예요. 돈도 7만 원이나 냈는데... 게다가 용량이 1기가였나?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되게 한정되어 있었고, 인터넷도 너무 느려가지고... 남아공 갈 때 책도 좀 가져갔거든요. 역사책하고 백과사전 같은 책이 좀 있었는데 그 책을 보고 또 보고 그 랐어요. (웃음) 저희가 사는 곳이 빌라였는데 가운데 운동장 같은 공용 공간이 있어서 빌라 사는 다른 아이들하고 테니스하고, 크리켓도 하고 그러면서 놀기도 하고요.

기타는 취미, 공연은 알바

은진 음악은 언제부터 했어요?

택서 엄마랑 저희 형제가 먼저 남아공에 들어가고 아빠가 몇 달 뒤에 오셨는데, 공부하신다고 악기들을 가지고 오셨어요. 남아공 간 지 8개월쯤 됐을 때부터 아빠한테 악기 배운 것 같아요.

은진 그럼 한국 전통음악을 남아공에서 시작한 셈인가? (웃음)

택서 네.

은진 재미있든가요? 똑같은 걸 배워도 아버지한테 배우는 건 좀 다를 수도 있잖아요.

택서 그래서 아버지가 가르치실 때 아빠로 대하지 말고 선생님이로 대해야 한다고 하시곤 했어요.

은진 아버지께서 바쁘시지 않으니까 굉장히 집중해서 배울 수 있었겠다.

택서 아... 그때 좀 귀찮긴 했어요. (웃음)

은진 공연도 했다고 들었어요.

택서 거기 한인회가 있는데 한인의 날에 두 번 정도 공연했었어요. 아빠가 공연 기획하고 공연하고 그런 것 하시니까... 그때 엄마 친구 아들, 딸이랑 저희 형제 넷이서 같이 공연했어요. 그러다가 세계 100위 안에 드는 레스토랑에서 공연해주고 밥 얻어먹은 적도 있어요.

은진 기타는 언제부터 쳤어요?

택서 남아공에서 아빠가 심심하시니까 계속 기타를 치시더라고요. 어느 날 저를 한번 가르쳐보시더니 괜찮겠다 하시고는 기타를 하나 사주셨어요. 그때는 한 세 곡 정도 하고 안 했거든요. 그러다 작년에 기타 동영상 보고 찾아서 공부하기 시작했으니까... 작년부터 친 거죠. '유튜브'에 있는 괜찮은



2015년 9월 명동에서 공연하는 모습. 요즘은 사물놀이 공연보다 형과 함께하는 핸드팬 공연을 더 많이 한다. 택서는 주로 기타나 장구를 치며 형과 호흡을 맞춘다.(왼쪽이 택서 오른쪽은 형 태동)

연주 동영상 고르고 악보 찾아서 연습해요. 시간 들이면 할 만한 것 같아요.

은진 요즘엔 뭘 제일 열심히 하고 있어요?

택서 음... (웃음) 요즘엔, 뭐, 아무래도 제일 많이 하는 건 공연하고 공연 연습이죠. 그런데 요즘은 사물놀이보다는 형하고 하는 핸드팬 공연이 훨씬 더 많아요. 그 다음에 기타 치는 것, 그 다음에 책 읽는 것. 아, 그리고 학교에 와서 그냥 있는 게 또 제일 많이 하는 일이고... 딱히 많이 하는 게 없어요, 학교가. 수요일은 공동체 날이지만 딱히 배우는 게 아니고 목요일은 제가 피아노를 배워서 못 오거든요.

은진 아티스트로서의 길을 계속 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택서 음... 지금은 그런 것 같긴 한데... (웃음) 그냥 놀면서 편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기타 치고 피아노 배우는 걸 취미라고 친다면 공연은 알바라고 칠 수 있겠죠. (웃음)

은진 공연이라는 게 어찌 보면 에너지를 많이 써야 하는 일이지 않아요? 무대 위에서 많은 걸 쏟아 부어야 하기도 하고.. 할 만해요?

택서 지난 주말에 공연을 하루에 두 번씩 했더니 월요일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어제 집에 가자마자 뺏었어요. 공연은 누가 시키면 진짜 하기 싫는데 막상 하면 재밌게 하는 것 같아요. 할 때는 할 만한데 하기로 했을 때는 진짜 부담되고... 공연을 하고 나면 해방감 같은 게 생기고 하루가 편해요

은진 이렇게 연약한 몸으로... (웃음) 많이 먹어야 돼.

택서 지난 번에 운현궁에서 공연 했는데, 진짜 막... (웃음) 너무 힘들었어요. 아휴...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은진 여기 와서 다시 한국 학교에 진학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택서 집 근처에 혁신학교가 있어서 가볼까 생각도 했는데 글썄 한국에 왔더니 초등학교 졸업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5학년을 마쳤다 생각하고 남아공에서 6학년으로 진학을 했는데 와서 보니 날짜를 다 안 채웠다는 거예요. 게다가 '아포스티유 협약'²⁾이라는 것이 있어서 학교 다녔다는 걸 그 나라에서 인증받아 있어야 했는데 그걸 놓쳐가지고...

은진 음...

택서 결국 초등 검정고시부터 다시 봤어요. 올해 4월에 고졸 검정고시까지 끝냈어요. 원래 작년에 중학교 졸업 검사를 따 놓고 올해는 고등학교 들어가볼까 했는데, '고입 내신성적 산출평가'³⁾라고 내신성적을 만들어주는 시험을 따로 봐야 하더라고요. 그걸 시험 한 달 전에 알았는데, 그 시험은 검정고시와 달라서 그 시간 안에 공부할,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3년 투자해서 고등학교 다니느니 3년이라는 시간을 벌자, 해서 그냥 검정고시를 봤죠. 그래도 한국 학교가 정말 궁금했었는데... 근데 여기 <이룸학교> 아이들은 그렇게 평범한 아이들은 아니더라고요.

은진 또래 친구들이랑 많이 어울리지는 않나봐요?

2) 어떤 국가의 문서를 따로 영사 확인 없이 서로 자국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협약이다. 아포스티유 확인서가 부착된 공문서는 외국공관의 영사확인 없이 협약가입국(문서접수국)에서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인정받게 된다.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같은 것들도 아포스티유 발급 가능 문서에 해당한다. 현재 100여 개국이 이 협약에 가입되어 있다.

3) 고입선발고사 폐지와 함께 중학교 내신 성적만으로 고등학교 신입생을 선발하게 됨에 따라 중학교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등의 내신성적 산출을 위해 시행하는 시험이다. 시험 과목은 국어, 도덕, 기술·가정, 수학, 사회(역사 포함), 음악, 과학, 미술, 영어 등 9개 과목이며, 시험 문제는 올해부터 '2009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교육내용'에서 출제한다. 문항 유형은 5지 선택형이다.



2013년 4월 이탈리아 산레모 터미널 광장에서 거리공연을 하는 태서. 태서네 가족은 2013년 남아공 생활을 정리한 뒤 9개월 동안 24개국 50여개 도시에서 180여회 사물놀이 공연을 하며 유랑을 한 뒤 귀국했다.

텍서 (웃음) 네... 제가 애들보다는 사실 어른들을 많이 만나가지고, 애들을 계속 어른들이랑 비교하게 되는 것 같아요. (웃음)

은진 이 학교 다니는 건 어때요?

텍서 요즘 《혼자 있는 시간의 힘》이란 책을 읽고 있는데, 그 책에 의하면 여기는 올 만한 곳이 아닌 것도 같아요.

은진 어떤 이유에서?

텍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야 자기를 계발할 수 있다고 해요. 요즘 사람들은 사람들을 만나고 무리지어 다니는 데 많은 시간을 쓰고, 그 다음에 의무적으로 해야 할 일들에 시간을 쓴 뒤, 자기 시간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관찰하는 시간이 적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은진 그런데 학교에 다니면서도 혼자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지 않나?

텍서 네. 여기(빈 교실) 있을 때랑 저기(교무실) 있을 때랑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은진 어떤 학교가 됐으면 좋겠어요?

텍서 뭔가 할 거리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필수 수업 같은 게 꼭 필요한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인문학과 소통 중에 골라야 한다면지, 수요일에 공동체활동 같은 것... 근데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하면 선생님들이 힘드시겠조...

은진 본인한테는 학교가 너무 널럴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본인 관심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교육과정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학교이지 않아요? 의견을 낼 수도 있고.

텍서 의견은 많이 냈는데, 실현되는 건 적은 것 같아요.

은진 요즘에 주로 어떤 책 읽어요?

텍서 약간 흥미 있는 책을 좋아하는데... 음... (수첩을 꺼내 뒤적이며) 《뇌는 어떻게 당신을 속이는가》 《혼자 있는 시간의 힘》. 제가 저를 잘 모르니까 자기성찰적인 책을 많이 보는데, 《제3인류》도 재밌는 것 같아요.

은진 앞으로 계획 같은 것 있어요?

텍서 음... (웃음) 음... 할 일을 정해놓고 우선순위를 매겨서 하고 있는데, 의무적인 일들을 해놓고... 어우,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웃음) (다시 수첩을 뒤적이며) 이 학교 다닐까 말까 계속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적당히 낮잠 자기'.

은진 (웃음) 이유가 궁금하네, 피곤해서 그래요?

택서 낮잠을 적당히 자면 하루가 좀 편할 것 같아요. 시간을 이렇게 빨리 안 가게 하려면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무 심어보기'도 있고, '증권 계좌 만들어서 주식해 보기'도 있는데... 계좌 만들어놓고 활성화를 안 해가지고... 며칠 동안 컴퓨터를 켜질 못했어요.

은진 주식을 해 보고 싶은 이유는 뭐예요?

택서 아버지가 돈을 100만 원 주시겠대요. 저는 그런 게 좀 맞을 것 같다고 한번 해보라고 하셨어요. 빨리 해야 하는데 미루고 있어요. 아,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한데...

은진 혼자 있는 시간이 부족한 것 같아요, 요즘?

택서 네, 그걸 아는데도 이래요... (웃음)



부

록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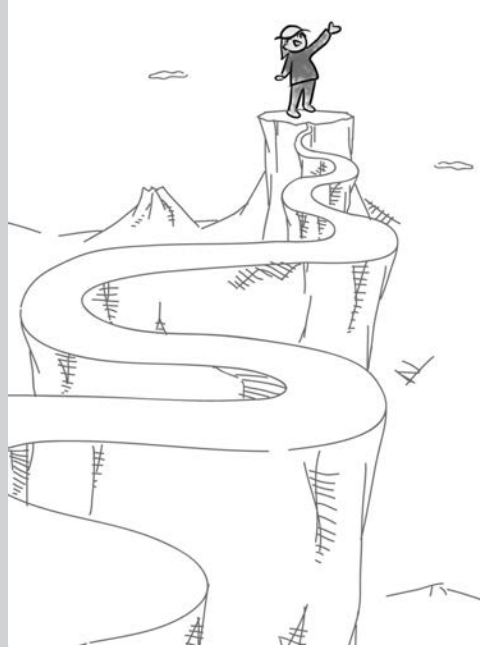
SEOUL
YOUTH
DREAM
CENTER



넘나들며 성장하는 배움터

꿈에학교 / 이룸학교 / 점프-업 코스 / 특별프로그램 /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





서울시립 청소년 드림센터

SEOUL
YOUTH
DREAM
CENTER



(재)한국천주교살레시오회

살레시오회는 청소년들의 스승이요 아버지라고 불리는 성 요한 보스코 ST. JOHN BOSCO, 1815~1888에 의해 1854년, 이탈리아의 토리노에서 창립된 수도회로서 창립자의 교육규범에 신앙심과 사랑에 바탕을 둔 건전하고 원만한 인격형성을 목표로 청소년 특히 가난하고 버림받은 청소년 교육을 주 목적으로 합니다.

현재 세계 130여 개 국가에서 약 17,000명의 살레시오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두 번째로 큰 가톨릭 수도회입니다.

창립자 성 요한 보스코처럼 우리는 청소년들에게 하느님 사랑의 전달자요 표징으로서 머물기를 원하는 우리는 살레시오 가족들을 포함하여 세상 곳곳에서 약 40만 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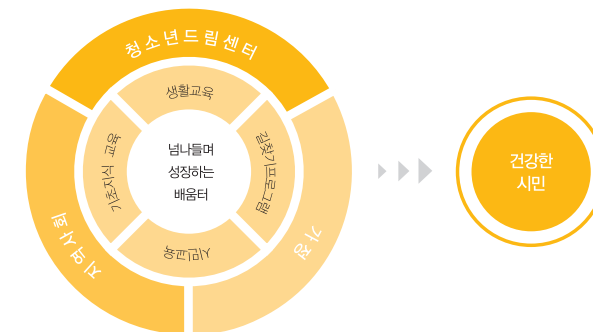
드림센터의 “넘나들며 성장하는 배우터”는

청소년들이 사람 · 공간 · 자신을 넘나들며 배우고 성장하는 집이고, 운동장이며, 학교입니다. 청소년들이 ‘활력’을 되찾고, 각자의 보폭에 맞춰 ‘배우며’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운영방향

교육목적 : 생활 · 생각 · 실천이 조화로운 시민교육

교육방법 : 인성과 실용교육의 조화



이용방법

- 청소년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 관심 있는 학교 및 프로그램에 대해 담당자 전화문의 후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꿈에학교

서울특별시교육청
위탁형대안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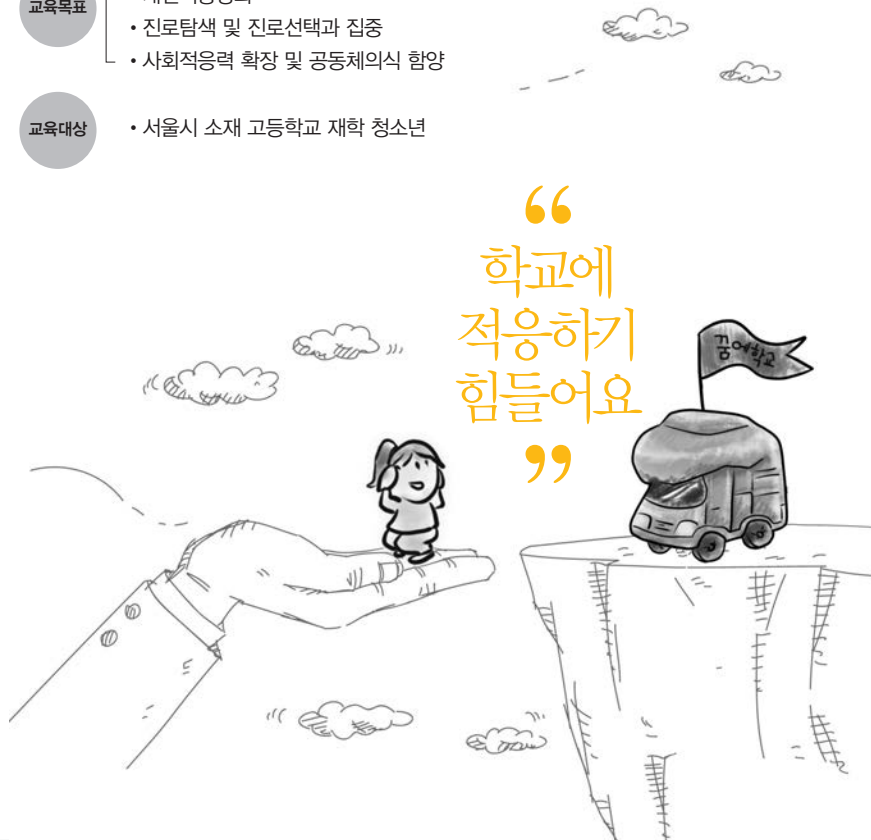
교육목표

- 건강한 성인으로서의 성장도모
- 개인역량강화
- 진로탐색 및 진로선택과 집중
- 사회적응력 확장 및 공동체의식 함양

교육대상

- 서울시 소재 고등학교 재학 청소년

“
학교에
적응하기
힘들어요
”



입학절차



주요교과과정

기본교과 국어, 영어, 수학, 사회(역사, 도덕 포함), 과학

대안교과
인성교과 : 인문학, 독서생활, 인권 등 기본소양 및 인성함양교육
진로교과 : 바리스타, 목공, 사진, 패션, 아트, 회화 등 진로탐색 및 실습과 더불어 다양한 분야의 활동과 자기성찰을 통한 프로그램 진행
특성화교과 : 자기성장프로젝트, 소리와 리듬(드럼, 기타, 건반, 우크렐레) 등 다양한문화체험(학기별 2회)

창의적 체험활동 자율활동 / 동아리활동 / 진로활동 / 봉사활동

체험활동

정규교과외 프로그램
• 기초생활캠프, 드림발표회, 청소년인턴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 기회 제공
• 개인상담, 심리검사 등 전문상담 연계

문의 02-2051-9926/8681 www.kkumschool.or.kr

이룸학교

학교밖청소년
도시형대안학교

“
학교 밖
새로운 배움을
원해요
”

교육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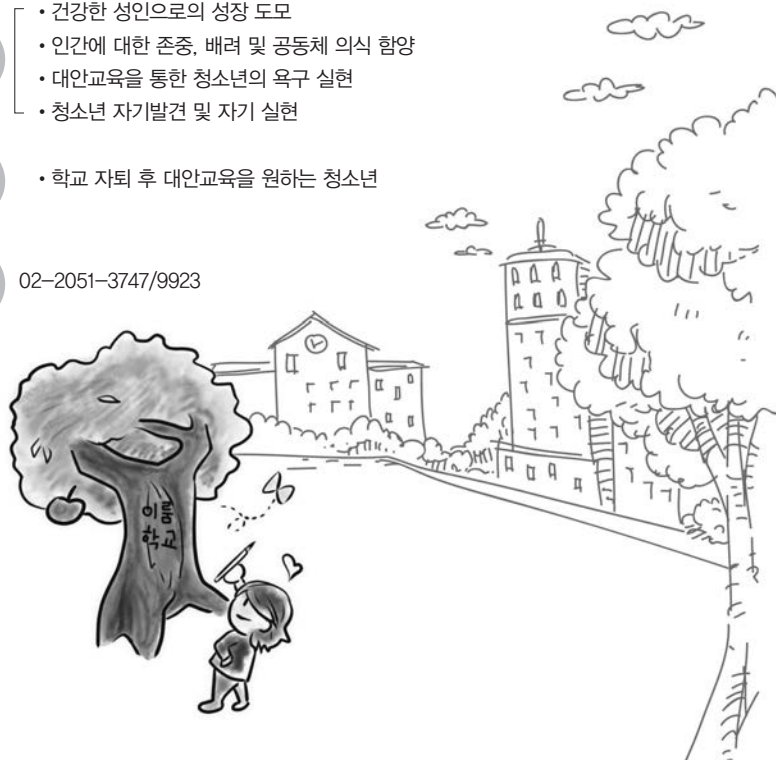
- 건강한 성인으로서의 성장 도모
- 인간에 대한 존중, 배려 및 공동체 의식 함양
- 대안교육을 통한 청소년의 욕구 실현
- 청소년 자기발견 및 자기 실현

교육대상

- 학교 자퇴 후 대안교육을 원하는 청소년

문의

02-2051-3747/9923



입학절차



주요 교과 과정

- 바탕, 자치, 생활, 광장학습을 통한 청소년의 자기발견
- 심화 프로젝트 활동을 통한 자기실현의 기회 및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통한 사회참여 연계

과정		목표
그룹과정	경험과 체험	학생 개인의 욕구와 학교 운영방향을 구조화하여 맞춤형 배움과 경험을 진행
	자기탐색	
	진학진출	
공동활동	공동체회의, 기초생활캠프 등	청소년이 다함께 스스로 진행하는 회의, 학습, 활동을 통한 따로 또 같이 성장하기
지식교육	수학, 영어 등	삶에 바탕이 되는 교육을 통한 내적인 힘 기르기
인성교육	인문학, 소통 등	다양한 시선으로 세상과 소통하고 건강한 인성을 기르기
시민교육	숲해설, 지속가능발전교육 등	지구의 시민으로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힘 기르기
신체활동	공동체놀이, 유연성향상 운동 등	몸을 쓰는 활동을 통해 정신과 육체의 건강을 함께 돌보기

점프-업 코스

3개월 단기학습과정

교육목표

- 기초 지식 함양 및 학력 취득(검정고시)
- '자립'에 필요한 역량 함양
- 생애설계, 평생학습 퍼실리테이션

문의

02-2051-8682/9923

“
검정고시와
새로운 삶을
준비할래요
”

입학절차



※ 모집기간 : 1월~9월

※ 운영기간 : 연중

교육 과정

검정고시 취득 교육

1) 검정고시 준비

종류 : 초졸, 중졸, 고졸 시험

교과 :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한국사, 도덕

2) 교육 방법

1:1 멘토링, 수준별 맞춤형 교육, “독립생활백서” 교육과 연계

독립생활백서

주제	내용
정신적 독립을 위하여	인문학 또는 의사소통 교육
경제적 독립을 위하여	자립을 위한 경제 교육
즐거운 삶을 위하여	혼자 또는 여럿이 즐기는 놀이 교육
좋은 연애를 위하여	사랑, 사람 그리고 연애를 위한 팁
사회 진출을 위하여	진로 코칭, 생애 설계 교육

특별프로그램

다양하고 특별한
프로그램 경험



특별교육 이수프로그램

(함께 성장하고
소통하는 우리)

함·성·소·리는 학교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청소년에게 개인의 내적성장 및 적응력 향상을 지원하는 특별교육프로그램입니다. 자기 재점검과 자기이해 프로그램, 소규모 공동체 활동을 통한 집단적응력 향상 및 관계형성 프로그램 등을 진행합니다.

교육 과정

의뢰신청서 접수(강남WEE센터) → 학교 담당교사 사전 전화면담 → 교육진행 → 특별교육결과통보서 제출(강남WEE센터) → 학교 담당교사 사후 전화면담 → 사후관리

문의 02-2051-8681

지속가능 발전교육

(인간의 조건)

학교밖청소년들이 지속가능발전 개념에 대한 가치를 내면화하여 건강한 시민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소양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교육 과정

참가자 모집 및 신청 → 지속가능발전교육 및 체험 → 자원봉사 → 평가

문의 02-2051-9923

숲해설 캠핑스쿨

학교밖청소년의 상처를 자연으로 치유하고, 생태 교육을 통해 자연 생태에 대한 전문적 이해를 도움으로써, 스스로 숲 안내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교육 과정

참가자 모집 및 신청 → 자연체험 활동 → 생태교육 → 숲해설가 교육 → 자원 활동 → 평가

문의 02-2051-8682

기초생활캠프

도시형 대안학교 학생들의 기초 생활에 대한 현실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자립심이 부족하고 절약이 생활화되지 못한 청소년들에게 시장 경제의 흐름 파악, 실생활 안에서의 역할 분담, 자연 속에서의 소박한 삶의 풍요로움을 알고 이를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교육 과정 대안학교 학생 참여 → 캠프 진행 → 캠프 평가 → 캠프 결과보고

문의 02-2051-3747

교사워크숍

학교밖청소년의 문화를 이해하고,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정보를 교류하며 교사역량강화와 공동학습을 모색, 청소년 관련 기관 실무자들이 청소년들에게 좋은 에너지를 전달하고 교육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 및 소진을 방지하고 자 성인 교육을 진행합니다.

교육 과정 교사 모집 및 신청 → 교육 및 워크숍 진행 → 평가 → 결과보고

문의 02-2051-9926

학부모교육

자녀가 겪는 사회적 어려움을 한 가정의 책임으로 고스란히 떠맡으며, 죄책감과 무거움으로 살아가는 부모들에게 자녀양육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삶의 활력을 찾는 성인 교육을 진행합니다.

교육 과정

학교 밖 청소년 학부모 모집 및 신청 → 프로그램 진행 → 프로그램 결과보고 → 학부모 자조 모임

문의 02-2051-3747

자원봉사자교육

학교밖청소년들과 직접적 관계를 맺으며 지식교육을 전달하는 자원봉사자들에게 자신의 봉사활동에 대한 의미, 청소년에 대한 이해, 멘토링 교수법 등의 교육을 실시하여 청소년과 자원봉사자의 성장을 도모하고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한 교육입니다.

교육 과정

학교밖청소년 자원봉사자 모집 및 신청 → 프로그램 진행 → 프로그램 결과보고 → 봉사자 자조 모임

문의 02-2051-3747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

SEOUL YOUTH DREAM CENTER

센터 현황

기관명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
(재)한국천주교살레시오회

홈페이지 www.dreamcenter.or.kr

위치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114길 43
시립청소년드림센터

문의전화 02-2051-8600

센터 소개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는 청소년이
행복한 꿈을 이루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기 위한 One-stop 서비스 기관입니다.
서울특별시가 설립하고 (재)한국천주교
살레시오회가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꿈자리입니다.

조직도



운영방향

- 청소년드림센터는 위기청소년 지원을 중점으로 운영합니다.
- 인성과 실용 역량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합니다.
- 위기청소년을 위한 상담, 교육, 활동, 진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한 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하철 2호선
삼성역하차 7, 8번출구 북쪽으로 500M지점
(도보10분거리)

버스
간선버스(파란색) : 143, 146, 401
지선버스(초록색) : 3414(기존56-2), 3412, 3411,
2413, 2411, 2225, 4419, 4418, 3422, 3417(기존 33),
3218(기존 69), 3415(기존 571-1), 4420

드림센터 주요사업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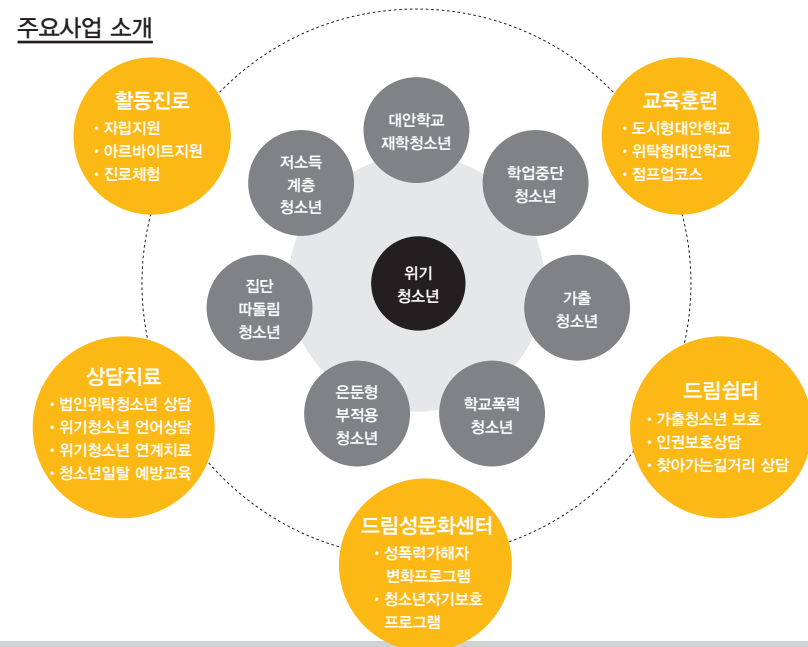
드림센터의 비전

위기청소년에게 ONE-STOP 개념의 필요한 종합서비스제공 및 청소년 보호와 안전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드림센터의 운영 원칙

- 청소년의 자율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 활동-치유-진로개척의 특화된 맞춤 서비스 및 연계 서비스 제공
- 청소년 자기주도와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시설 운영
- 학교 및 지역사회, 병원 등과 연계와 협력을 통한 기관 운영
- 긍정적이고 생동감 있는 기관 이미지 구축을 통한 청소년 친화성 제고
- 최초 위기개입 상담서비스에서부터 청소년의 보호·자립·자활까지 통합적 서비스 구축

주요사업 소개



서울시립 청소년드림센터

이용공간 안내

드림 놀이터

인터넷카페, 포켓볼, 노래방,
보드게임, 핸드사커, 에어하키,
탁구, Wii 게임 등 다양한 놀이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및 청소년을 동반한
성인 이용 가능합니다.

이용시간 평일 11:30~20:00
토 09:00~18:00
일 11:00~17:00
문의 02-2051-0918

드림카페



드림카페는 청소년이 운영하는 카페입니다.
청소년이 직접 만든 부담 없는 가격의
좋은 음료와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휴식과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용시간 평일 09:30~17:00
문의 02-2051-3751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 • SEOUL YOUTH DREAM CENTER



휴카페

역사, 문학, 자기개발, 예술, 여행, 만화 등
다양한 분야의 도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세미나실(3~10명) 이용 가능합니다.

이용시간 평일 09:00~20:00
토 09:00~18:00
일 11:00~17:00
문의 02-2051-0918





